

아이스티

# AI'S T

성아연 IT Trend Magazine

2025.02

## 특별기고

생성형 AI의 진화와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39기 김대용)

## 특별기고

자율주행과 AI,  
그리고 자동차 시장의 미래  
(37기 김응수)

## 특별기고

머신러닝을 통한  
이직 예측의 시대가 왔다  
(40기 염승빈)

## IT트렌드

Deepseek와 Qwen의 의미,  
그리고 중국 AI와 IT 기술의 미래  
(37기 김응수)

## IMBA 활동

나의 첫 폴코스 마라톤 완주  
(39기 이은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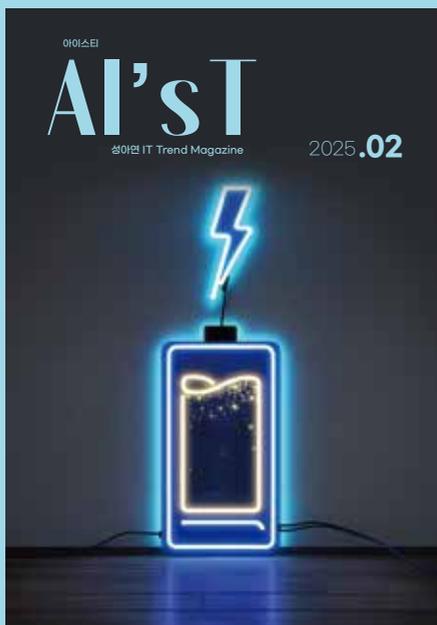
## IMBA 문화

아연팜의 새벽을 깨워드려요  
(39기 김동환)

## IMBA 활동

24년 해외 동문 지식 나눔 세미나  
in 후이저우  
(38기 차선희)





## 표지 디자인에 대한 설명

'아이스티로 충전하다'는 컨셉을 바탕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순간, 아이스티 매거진을 읽으며 힐링하고 IT 지식을 채우는 시간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아이티 매거진으로 휴식과 지적 충전의 시간을 선물하길 바랍니다.

성균관대학교 IMBA 아이티 연구회 발행

발행일 | 2025. 02. 22

디자인 | 정유현(j48192509@gmail.com)

성아연닷컴 웹페이지 제작 | 김소희(41기) <http://sungayeon.com>

편집인 | 김태형(42기), 노근배(41기), 송혜민(40기), 구경모(39기)

작가단 | 김대용(39기), 김응수(37기), 염승빈(40기), 임보배(43기), 고정석(15기), 송혜민(40기)

손성완(41기), 김종훈(41기), 김태형(42기), 김준형(43기), 이은홍(39기), 이지선(39기)

김동환(39기), 차선희(38기), 박새미(43기), 장관석(43기), 이상훈(43기)

광고주 및 후원 | 김응수(37기), 송혜민(40기), 김동환(39기), 김태훈(42기), 노근배(41기), 변장원(41기)

여러분들의 참여와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contents

### Congratulatory Message

- |    |     |          |
|----|-----|----------|
| 05 | 추천사 | 추천사      |
| 06 | 인사  | 총학생회장 인사 |
| 07 | 인사  | 6대회장 인사  |

### Special Column

- |    |      |                          |
|----|------|--------------------------|
| 08 | 특별기고 | 생성형 AI의 진화와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
| 12 | 특별기고 | 자율주행과 AI, 그리고 자동차 시장의 미래 |
| 16 | 특별기고 | 머신러닝을 통한 이직 예측의 시대가 왔다   |

## IT Trand & Fusion

- |    |        |  |
|----|--------|--|
| 20 | IT트렌드  | 한강의 노벨상 수상으로 본 AI 번역의 가능성                |
| 30 | IT현업   | 고객 데이터(Customer Data)는 흘러야 의미가 있다        |
| 35 | IT현업   | 야구가 취미에서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의 이야기               |
| 42 | IT현업   | AI 시대, HBM이 최적의 솔루션                      |
| 47 | IT현업   | 놀면 뭐하니 어플이나 만들어야지                        |
| 51 | IT 트렌드 | Deepseek와 Qwen의 의미, 그리고 중국 AI와 IT 기술의 미래 |
| 59 | IT 트렌드 | 쓰기의 자동화 시대, 우리의 읽기-쓰기에 대하여               |
| 62 | IT 트렌드 | 기술주권 시대를 준비하라, '소버린 AI'                  |

## People & Issue

- |    |         |                              |
|----|---------|------------------------------|
| 66 | 문화기행    | 자카르타, 문화와 전통이 공존하는 특별한 여행    |
| 71 | IMBA 활동 | 나의 첫 풀코스 마라톤 완주              |
| 74 | IMBA 활동 | MBTI보다 IMBA로 다양한 인생을 만나보세요!  |
| 78 | IMBA 문화 | 아연팜의 새벽을 깨워드려요               |
| 82 | IMBA 활동 | 24년 해외 동문 지식 나눔 세미나 in 후이저우  |
| 86 | IMBA 문화 |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러시아 바이칼 호수로 가요 |
| 91 | IMBA 문화 | 2025년 봄, 성균관대 맛집 Best5를 찾아서  |
| 94 | 성아연 소개  | 2024년 2학기 5대 성아연 활동보고        |

## 추천사

성균관대학교 IMBA IT 매거진 'AI's T' 4호 발간을 축하하며  
안녕하세요. 42기 김태훈입니다.

먼저 성아연 IT연구회에서 발간한 네번째 IT 트렌드 매거진, 'AI's T(아이스티)' 4호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호 역시 IT 트렌드와 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기고들로 더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스티는 단순히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조명하는 소중한 성균관대 imba 자산입니다.



이번 호에서도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습니다. 각 기고마다 저자들의 경험과 통찰이 녹아 있어, 읽는 이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미래(37기 김응수), 머신러닝을 통한 이직 예측의 시대(40기 염승빈), 한강의 노벨상 수상으로 본 AI 대중화와 번역(37기 김응수), 고객 데이터는 흘러야 의미가 있다(43기 임보배), AI시대, 우리의 읽기-쓰기에 대하여(41기 김중훈), 자카르타, 문화와 전통이 공존하는 특별한 여행(43기 김준형), 나의 첫 풀코스 마라톤 완주(39기 이은홍), MBTI보다 IMBA(39기 이지선), 아연팸의 새벽을 깨워드려요(39기 김동환), 2024년 해외 동문 지식 나눔 세미나 in 후이저우(38기 차선희)

이처럼 이번 아이스티에서는 단순한 IT 트렌드 분석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AI와 데이터 기술이 실생활과 기업 운영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IMBA 원우들의 기고를 통해, 최신 기술 동향뿐만 아니라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엿볼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큼니다. 성대 IMBA내 많은 실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역량을 가진 원우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로 원우들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내부 강연과 연구회를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처럼 아이스티를 매개로 적극적인 교류는 IMBA에서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되어, 성대 IMBA 발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폭넓은 주제를 다뤄 IMBA 원우들과 더 많은 소통을 기대하며, 나아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MBA 원우들에게도 아이스티를 소개 및 교류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대 IMBA 아이스티 준비한 운영진분들, 작가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IMBA 42기 김태훈

# 인사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균관대학교 IMBA 원우여러분  
43대 총학생회장 이상훈입니다.



6대 성아연 출범과 더불어 AI'sT 4번째 발간이 25년의 시작과 함께  
출판되었습니다.

성아연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현대  
의 트렌드를 가장 먼저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성균관대학교의 명실상부한 IT연구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매 학기마다 발간되는 AI'sT에는 AI/IT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원우들의 경험 및 일상  
들을 직접 기고하여 IMBA 원우들에게 인사이트뿐 아니라 서로의 따뜻한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매력적인 집단지성의 집약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I'sT를 한 페이지를 넘기신다면 어느순간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게 되는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45기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설레임이 가득한 학교  
생활을 기발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이벤트들이 넘쳐나고 아연팬들의 인사이트와 따뜻함이 있는  
이곳 성아연에서 아연팬으로 함께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및 졸업생 아연팬들도 다채로운 색깔의 성아연을 신나게 즐기면서 집단지성의 풍성한  
즐거움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AI'sT의 4번째 출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더욱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는 6대 성아연의 출범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 없는 발전과 성아연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IMBA 43대 총학생회장 **이 상 훈**

# 인사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IMBA AIT 연구회의 6번째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된 장관석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선배 회장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힘입어, 저희 연구회는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여러분과 함께 우리 연구회를 한층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지식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은 이해와 친밀감을 쌓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주된 목표는 최신 IT 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해 각자의 지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세미나, 워크숍, 그리고 실시간 웹 세미나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임의 장을 통해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서로에서 배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AI와 IT 기술을 어떻게 즐겁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이런 기술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및 IT 분야의 최신 뉴스와 동향을 공유하여,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우리 모두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현장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사이트를 얻는 자리도 마련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연구회가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학습과 성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따뜻한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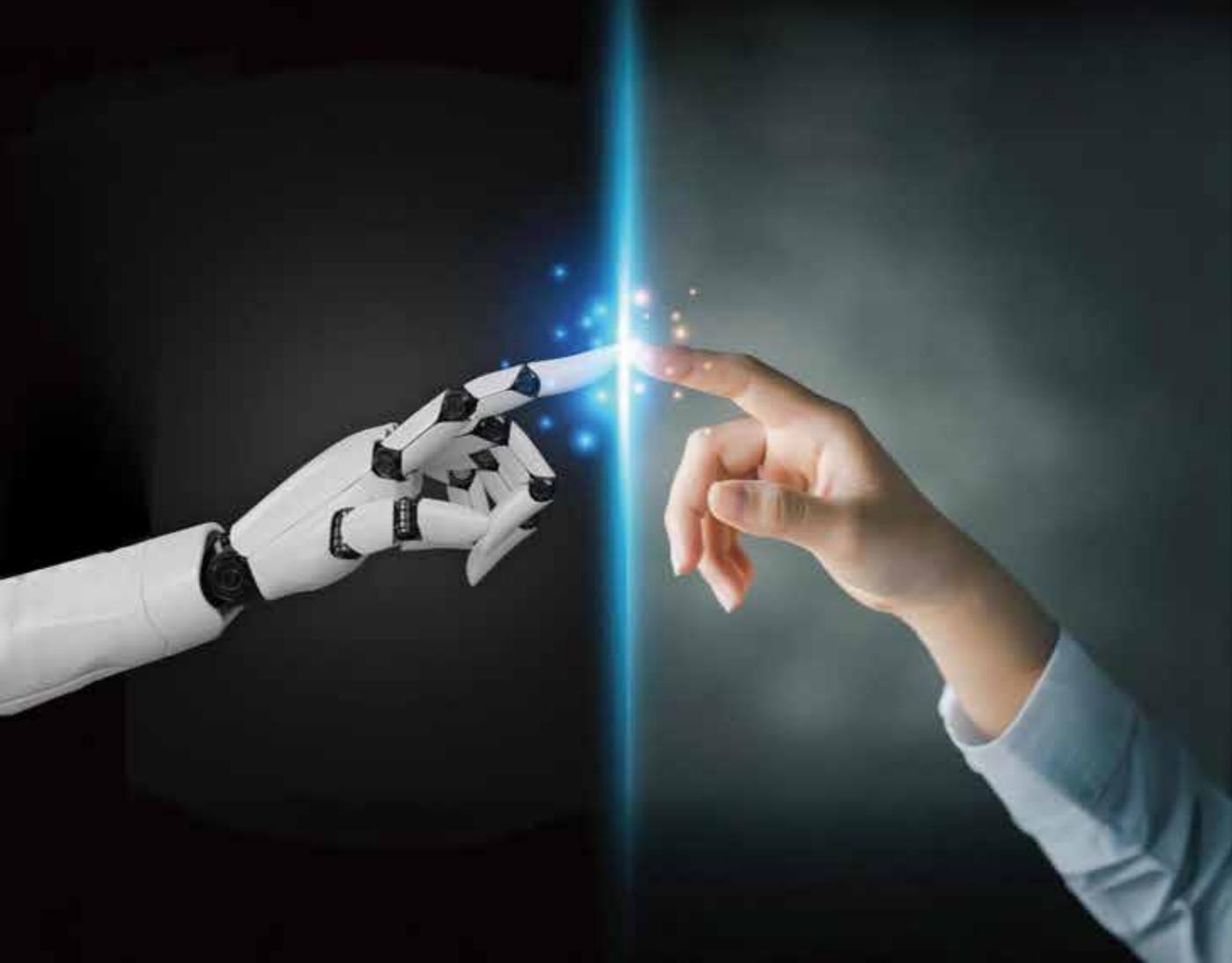
2025년 2월

제6대 성아연 회장 장관석

# 생성형 AI의 진화와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writer. 김대용 (39기)

초기 생성형 AI 서비스는 주로 단일 모델이 텍스트 기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여러 AI가 협업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다양한 입력 방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본 기고문에서는 생성형 AI의 기술적 발전이 AI 서비스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단일 응답형에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Multi-Agent System)으로 진화**

기존에는 단일 AI 모델이 모든 작업을 수행했다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서는 여러 개의 AI가 역할을 나누어 협업하며, 더 정교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MAS) 도입 후 생성형 AI의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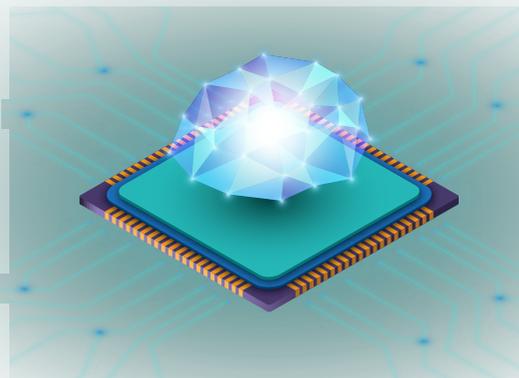
변화 요소	단일 에이전트 AI	멀티 에이전트 AI
작업 처리 방식	단일 모델이 모든 작업 수행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적인 작업 수행
복잡한 문제 해결	제한된 문제 해결 능력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연산 효율성	하나의 AI가 모든 데이터 처리	여러 에이전트가 병렬 처리하여 속도 증가
적응성과 학습	정적인 모델 기반 예측	다중 에이전트 간 상호 학습 가능
서비스 품질	일괄적인 답변 생성	맞춤형, 컨텍스트 기반 응답 제공
AI 간 협업	단순한 질의응답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AI가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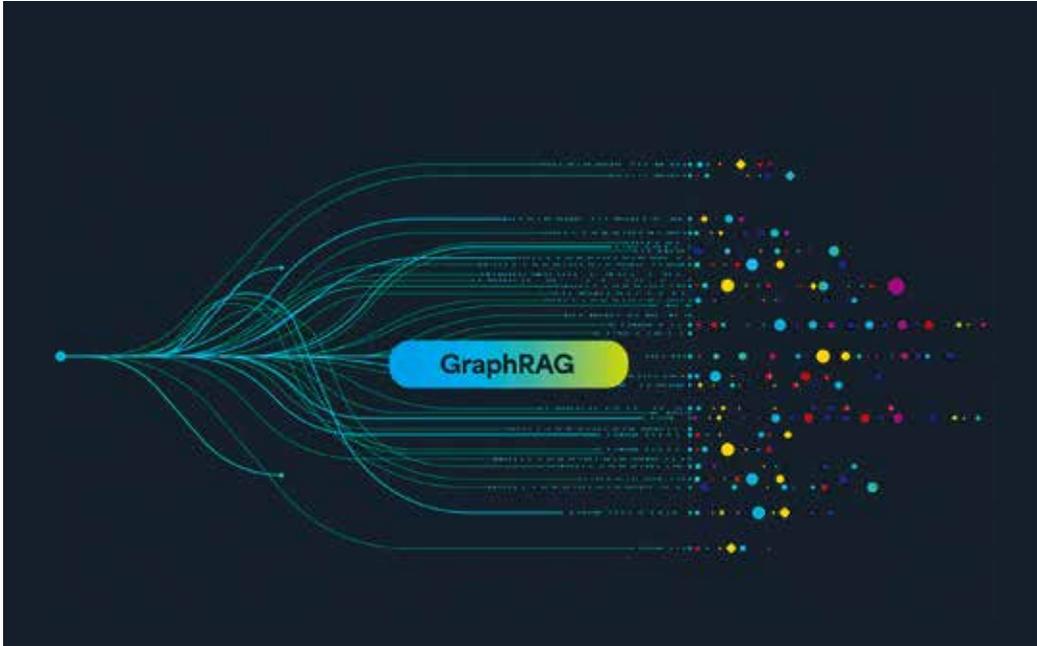
<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구현 예시 >

- 뉴스 분석 에이전트 : 최신 금융 뉴스 해석
- 차트 분석 에이전트 : 기술적 분석 및 가격 패턴 예측
- 포트폴리오 최적화 에이전트 : 개별 사용자에게 맞는 투자 전략 추천
- 리스크 관리 에이전트 : 변동성과 위험 요소 분석

<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구현 시 고려사항 >

- 아키텍처 설계 : (1) 목적 및 의사결정 방식에 맞는 독립성이 확보된 에이전트 정의  
(2) 멀티 에이전트 간 효과적인 통신과 협업 구조 설계
- AI모델 조합 : 에이전트 별 텍스트, 이미지, 추천 등 기능에 적합한 AI모델 선정





### 둘째, 정보 검색 방식이 단순 검색에서 관계 기반 GraphRAG로 발전

GraphRAG는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단순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데이터 간의 관계(그래프)를 분석하여 더 정밀한 응답을 생성하는 기술로, 데이터 간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맥락을 이해하고 보다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 < 기존 RAG vs GraphRAG 비교 >

변화 요소	기존 RAG	GraphRAG
검색 방식	단순 키워드 기반 검색	개념 간 관계를 고려한 검색
문맥 이해	독립적인 문서 검색 후 응답	문서 간 연결 분석 후 종합적 답변
정보 구조	비정형 데이터 검색 후 답변 생성	그래프 기반의 관계 데이터로 구조화
응답 품질	단편적인 답변 제공	심층적인 문맥 분석 후 답변 생성

#### < GraphRAG 활용 예시 >

- 기존 RAG 방식 : "테슬라 주식 전망" 질문 시 최신 보고서에서  
 "\*\*테슬라 주가 상승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장 기반 추출
- GraphRAG 방식 : (1) "테슬라 실적 발표 내용" 연결  
 (2) "시장 트렌드와 비교 분석"  
 (3) "유사한 사례의 과거 패턴 분석"  
 (4) 결과적으로 더욱 논리적인 전망 및 해석 제공

#### < GraphRAG 구현 시 고려사항 >

- 데이터 모델링 및 그래프 구조 설계 : 어떤 데이터를 노드와 엣지로 정의할지 결정
-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 정확한 개념 추출 및 데이터 정제 과정이 필요
- GraphRAG 최적화 : GraphDB 구성 및 검색 방식(Graph + 벡터 검색 등) 결정

**셋째, 텍스트 중심에서 멀티모달 AI(Multi-Modal AI)로 확장**

사용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입력 방식을 통해 AI와 소통할 수 있으며, AI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존 AI vs 멀티모달 AI 비교 >

구 분	기존 AI (단일모달)	멀티모달 AI
입력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음성 중 하나	텍스트 + 이미지 + 음성 + 영상 등
분석 능력	단일 데이터만 분석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
사용 사례	텍스트 기반 챗봇, 이미지 분석 AI	금융 AI, 자율주행, 영상 기반 검색
응답 형태	입력 모달에 맞춰 단일 응답 생성	여러 모달 데이터를 결합한 답변 생성

< 멀티모달 AI 활용 예시 >

- 입력 방식 : 시장 뉴스 + 주식 차트 이미지 분석 + 실시간 음성 질의/응답
- 서비스 흐름 : (1) 투자자가 마이크를 통해 "삼성전자 주가 분석해줘"라고 요청  
 (2) 실시간 뉴스 분석  
 (3) 차트 이미지 인식하여 기술적 분석 수행  
 (4) 분석 결과 종합 후 AI가 텍스트 및 음성으로 답변

< 멀티모달 AI 구현 시 고려사항 >

- 데이터 정합성 및 동기화 : 서로 다른 데이터(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간 매칭
- 응답 최적화 : 사용자 기준 가장 적절한 답변 방식 선정(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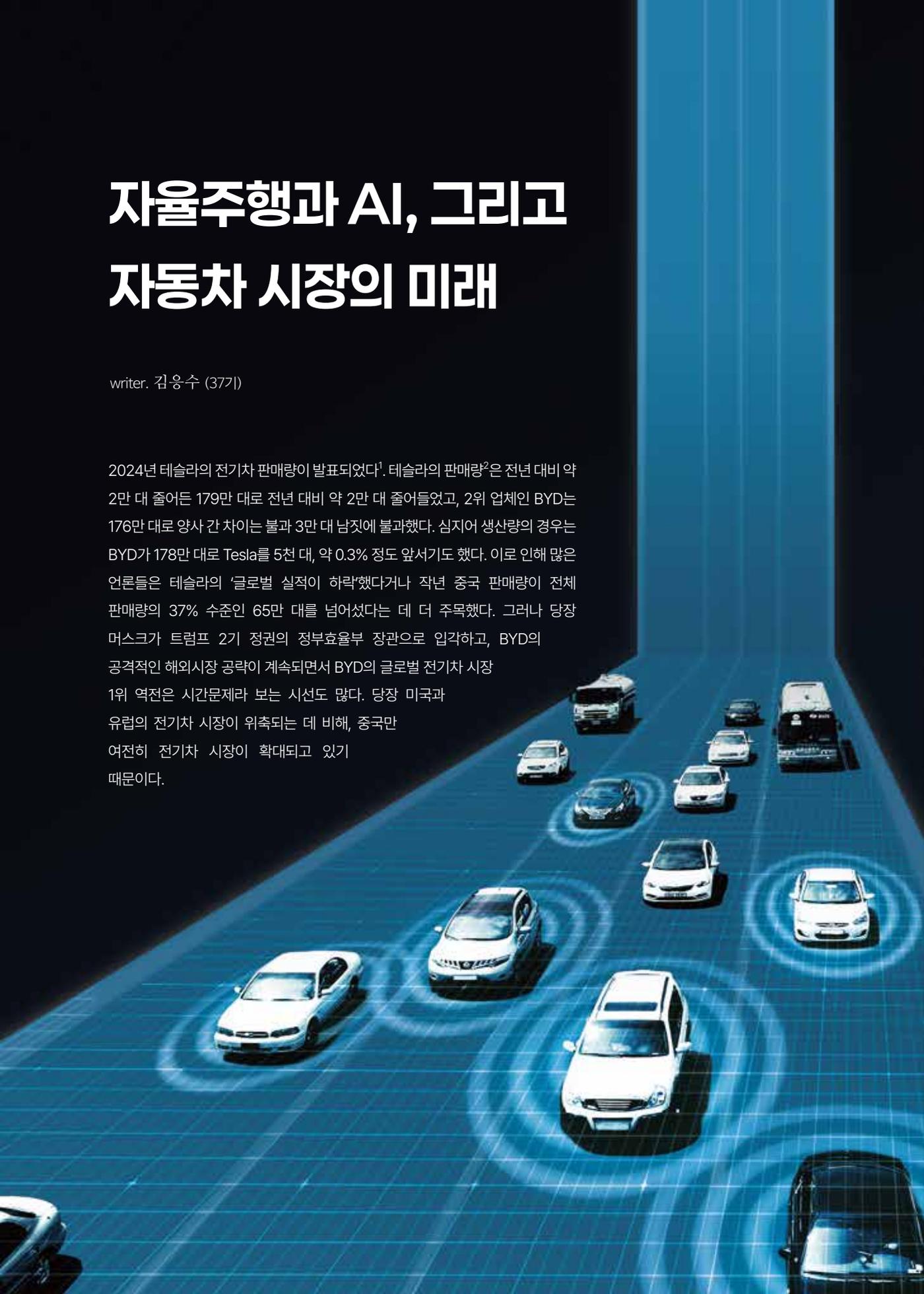
생성형 AI는 초기의 단순한 응답형 시스템에서 벗어나,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GraphRAG, 멀티모달 AI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더 정교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AI를 단순한 응답형 모델에서 실시간 분석과 협업이 가능한 맞춤형 AI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AI는 금융, 의료, 법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개인화된 방식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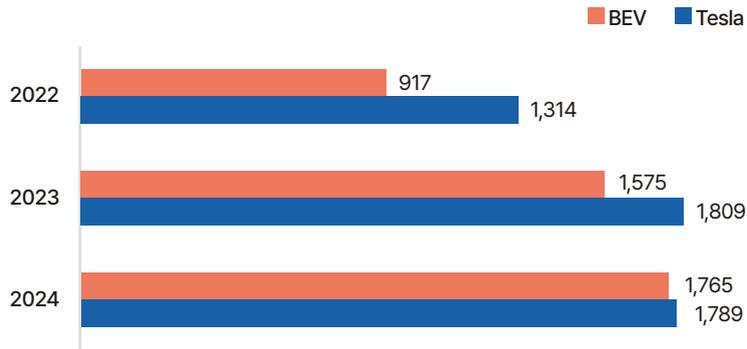
# 자율주행과 AI, 그리고 자동차 시장의 미래

writer. 김응수 (37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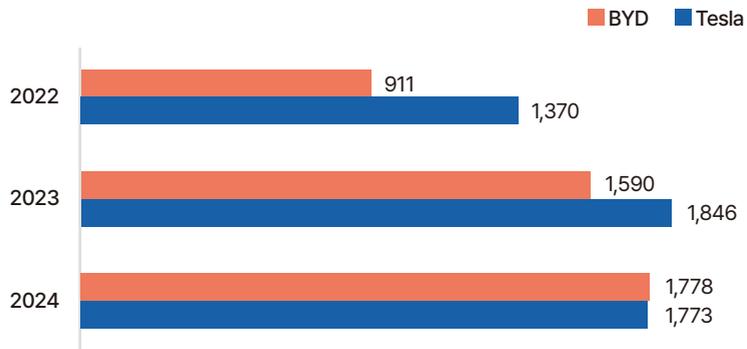
2024년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발표되었다<sup>1</sup>. 테슬라의 판매량<sup>2</sup>은 전년 대비 약 2만 대 줄어든 179만 대로 전년 대비 약 2만 대 줄어들었고, 2위 업체인 BYD는 176만 대로 양사 간 차이는 불과 3만 대 남짓에 불과했다. 심지어 생산량의 경우는 BYD가 178만 대로 Tesla를 5천 대, 약 0.3% 정도 앞서기도 했다. 이로 인해 많은 언론들은 테슬라의 '글로벌 실적이 하락'했다거나 작년 중국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37% 수준인 65만 대를 넘어섰다는 데 더 주목했다. 그러나 당장 머스크가 트럼프 2기 정권의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입각하고, BYD의 공격적인 해외시장 공략이 계속되면서 BYD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1위 역전은 시간문제라 보는 시선도 많다. 당장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는 데 비해, 중국만 여전히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 BEV 판매량 (단위: 천 대)



### BEV 생산량 (단위: 천 대)



Covid 이후 5년 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화해왔다. 2020년 세계 자동차 시장은 Covid 이전보다 무려 16% 하락한 7460만 대 판매에 그쳤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차량 판매량이며, Covid 이전으로 시장규모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Dieselgate) 이후 본격화된 전기차 시장의 영향으로 신차 시장이 회복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자동차 생산은 불과 11만 대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같은 시기 미국이 82만 대, 유럽이 413만 대 하락할 동안 중국 시장은 무려 530만 대가 성장했다. 이 결과 판매 관점에서 중국 내수 자동차 시장은 2019년보다 109만 대나 성장했으며, 수출량도 2019년 125만 대의 약 5배인 597만 대로 급증하면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업체 관점에서도 2019년 이후 만 5년 동안 판매량은 BYD 375만 대, Geely 100만 대, Chery 130만 대 등 중국 제조사 중심으로 압도적인 성장을 거두었으며, 143만 대 성장한 Tesla 외에는 대부분의 선진국 자동차 업체의 판매가 급락했다.

이 결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생산, 판매<sup>3</sup>하는 나라이자 가장 많은 차를 보유한 나라<sup>4</sup>가 되었고, 중국계 자동차 제조사는 전 세계에서 일본계 업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2024년 말 현재 전 세계 21% 수준인 전기차<sup>5</sup> 보급률은 이미 2024년 중 약 반 년 이상 신차 보급률 50% 이상을 넘은 중국 시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보급률은 10% 내외로 정체된 상태다.

지난 10월, Tesla가 로보택시를 공개하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사실 자율주행차는 중국에서 좀더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차세대 기술이기도 하다.

Covid 시기 이동 통제 및 봉쇄를 실시했던 우한(Wuhan), 상하이(Shanghai), 광저우(Guangzhou) 등에서 중국 정부는 방역물자 및 식량 운송을 위한 무인차 운행과 관련한 다양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엔데믹 이후에도 중국 전역의 폐쇄회로TV(CCTV<sup>6</sup>)를 통해서 수집한 중국 국민들의 안면인식 정보와 도로 정보를 결합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크게 업그레이드해왔다.

사실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의 우위는 중국의 Bigtech, 그 중에서 Huawei, Baidu, Xiaomi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인한 바 크다. 만형 격인 Huawei는 미국의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체의 스마트 콕핏(Smart Cockpit), 스마트 자율주행 기능 등 전장 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Huawei Inside 방식과, 완성차 업체와 신차 전체를 공동설계하는 HIMA<sup>7</sup> 방식 등을 통해 사실상 중국 완성차 사업에 깊이 관여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AITO, LUXEED, STELATO 등 다양한 EV 브랜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Baidu는 차량용 OS인 Apollo 시스템을 개발하고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인 Baidu Map과 연계하여 4단계 자율주행 엔진인 Apollo Lite를 2024년부터 출시했다. 특히 충칭 (Chongqing), 우한 등에서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기반의 로보택시 서비스인 Apollo Go를 출시하고 Apollo OS가 장착된 택시를 1천 대까지 확대하여 상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Xiaomi는 스마트폰 판매 초기부터 완성차 진입을 전제로 다양한 준비를 해 왔으며 지난해 3월 출시한 첫 차 SU7이 지난 한 해 13.5만 대를 기록하며 당초 목표인 7만 6천 대의 거의 두 배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했다.

현재 준비 중인 두 번째 차 YU7은 중형 SUV로 올 2분기 출시를 앞두고 막판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Xiaomi의 경우 스마트폰과 차량의 OS를 완벽하게 동기화하는 Hyper OS를 적용했으며 단순 Software 측면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 콕핏, 배터리, 모터 등에 이르는 Hardware 분야로 수직계열화를 확장하는, 이른바 역 수직계열화 방식을 통해 빅테크 업체 중에서는 사실상 부품 수직계열화에 한 발 다가선 편에 속한다.

이런 빅테크 업체들의 전략은 각기 상이하지만 전기차의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특히 자율주행 기술과 차량 OS의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 기반기술을 중국에서 대중화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결과적으로 구글과 애플이 하지 못한 EV 생태계를 중국 빅테크 업체가 독자 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업체들의 경우도 전기차 스타트업이나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하였으며, 특히 Tencent는 이런 활동 외에 자동차 관련 리서치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2025년 CES에서 나타난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완성차 업체의 참여가 크게 줄었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 지난 한 해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 시장 성장이 위축된 것, 그리고 중국 업체와 현대차 그룹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에서 전기차 생산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과 관련성이 높다.

자동차 산업이 성장한 이래 시장을 주도해온 유럽과 미국 업체 대부분은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인 판매감소를 경험했고 전기차 시장의 초기 성장과 맞물려 판매를 확대해온 유럽 프리미엄 업체 역시도 상품 경쟁력을 빠르게 갖춘 중국 업체들의 영향으로 시장을 주도할만한 미래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기차로 대표되는 미래 자동차의 기술 주도권이 사실상 하드웨어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업체와 핵심 부품업체로 넘어왔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좀더 정확하다. 전기차의 경우 1차적으로는 배터리와 공조(HVAC)<sup>8</sup>를 포함한 차량 성능을 컨트롤하기 위해, 2차적으로는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sup>9</sup>나 자율주행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완성차 업체들은 부품 수직계열화를 추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체 OS를 개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Tesla와 중국 업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체는 시스템 내재화 개발에 사실상 실패했다.

당장 폭스바겐의 자회사였던 CARIAD를 중심으로 개발하던 VW OS는 개발지연이 장기화됨에 따라 중국 Xpeng과의 협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이며, 스텔란티스도 기존 Amazon 외에 Leapmotor와의 협업도 기정사실화했다. GM, Ford와 같은 미국계 업체들은 안드로이드 OS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는 등 양산차 업체의 상당수가 자체개발에서 협업개발 혹은 외주 개발로 방향을 정함에 따라 이들 차량의 출시나 성능 목표 등도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북미와 유럽 내 전기차 판매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시장 내 하이브리드 차량이 높아지는 지금의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젠슨 황이 발표한 CES Keynote는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그는 로봇, 자율주행 차량 등 물리적 세계의 모빌리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코스모스 플랫폼을 발표했고,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 개발 플랫폼인 NVIDIA DRIVE Hyperion을 공개했다.

특히 도요타,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자동차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 등 차세대 모빌리티 측면에서의 협업을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과 연계해서 이들의 전략을 해석해보자면 결국 로봇, 자율주행차로 연결되는 차세대 모빌리티와 AI를 연결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OS와 전장칩을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중국의 자율주행차 성능 개선 사례에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결국 미래형 모빌리티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Control Processing Unit(반도체)와 운영체제, 빠른 네트워킹을 위한 통신 모듈과 서버, AI 관련 반도체 등이 모두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기존 완성차 업체가 강점을 가지고 있던 in & exterior chassis 관련 부품의 숫자, 영향력은 모두 전장과 시스템에 비해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래 모빌리티, 특히 미래 전기차의 영향력은 전장, 시스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사실 젠슨 황의 미래전략은 산업 측면에서는 NVIDIA가 Huawei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자동차 생산을 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언론이나 시장의 반응은 아직 그런 가능성을 높이 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uawei가 미국의 규제 속에서도 사실상 중국 내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 사실상 진입했고, Xiaomi도 SU7의 성공적 출시와 후속차종 준비를 통해 자동차 산업에서 새로운 방정식을 쓰고 있다고 본다면, NVIDIA의 전략도 향후 시장에서 적잖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게다가 NVIDIA의 고객은 북미, 유럽, 일본, 한국은 물론 중국 완성차 업계까지 포괄하고 있으니, 성공한다면 영향력은 Huawei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전 세계 완성차 업체의 자율주행차로의 방향전환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다만, 자율주행차의 시스템과 동력원으로써 기존의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sup>10</sup> 동력이 전기차에 비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자율주행차는 EV, 그 중에서도 BEV 기반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몇 년 내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1세대 자율주행차의 판매 가능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3~5년 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주요한 변화는 자율주행차의 성공 여부, 그리고 AI 기술과 연계된 물리적 AI 시스템이 현실화, 상용화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빠진 기존 완성차 업체의 진화 가능성, Tesla, BYD 와 같은 EV 업체의 자율주행차 성능과 함께 NVIDIA가 제시한 플랫폼의 실현 가능성은 앞으로 계속 주목할만한 시장 트렌드가 아닐까 한다.

Source

S&P Mobility (舊 IHS Markit), 2025.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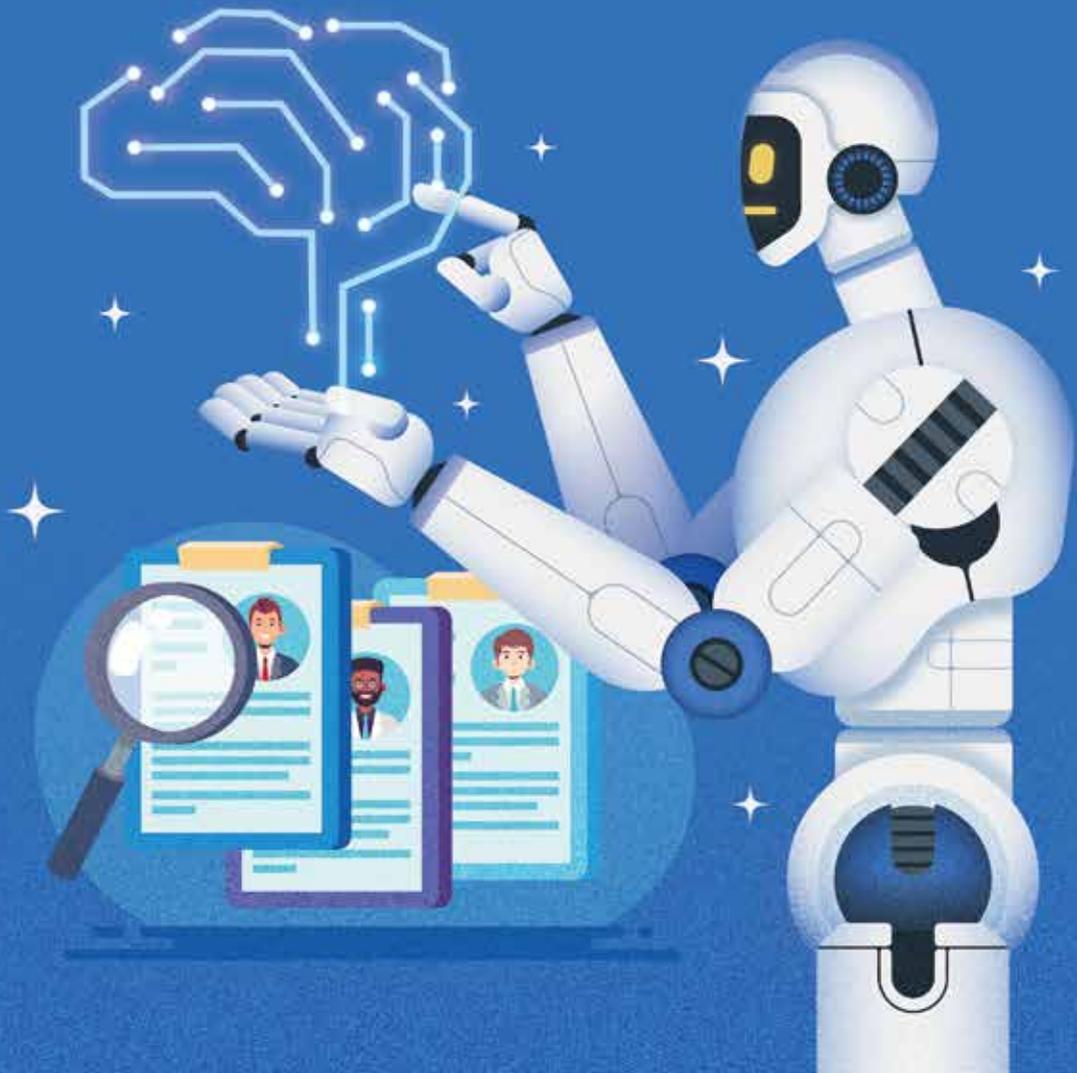
Tesla IR / BYD IR / CEIC / 중국 국가통계국 / 미국 통계국

1. <https://ir.tesla.com/press-release/tesla-fourth-quarter-2024-production-deliveries-and-deployments>
2. 영문 표현으로는 deliveries로 '인도량'으로 번역되기도 함. 여기서는 국내 언론의 번역과 동일하게 '판매량'으로 씀.
3. 2024년 기준 2989만 대 생산, 2635만 대 판매. (Source: S&P Mobility)
4. 2023년 기준 중국 3.3억 대, 미국 2.9억 대 보유 (Source: CEIC, 중국 국가통계국, 미국 통계국)
5. 순수 전기차인 BEV(Battery EV)와 저가형인 PHEV(Plug-in Hybrid EV)를 포함. 중국에서는 신에너지차(NEV, New Energy Vehicle)라고도 부름
6. Closed Circuit TeleVision
7. Harmony Intelligent Mobility Alliance
8.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9.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10. HEV, PHEV, EREV(Extended Range EV) 등을 포함.

# 머신러닝을 통한 이직 예측의 시대가 왔다

writer. 엄승빈 (4071)

인재 유지는 조직의 성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조직 속에 스며든 MZ 세대(밀레니얼+Z세대)를 보면 그들의 다양한 가치관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여러 번 이직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어떤 이는 안정된 삶을 원하고, 다른 이는 빠른 성장과 도전을 꿈꾼다. 누구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또 다른 이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가지각색의 가치관 속에서 조직이 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오래 함께할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결사인 피플 애널리틱스(People Analytics, 이하 PA)가 등장한다. PA는 HR(Human Resources)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행동과 성향을 분석하고, 이직 가능성을 예측하며, 더 나아가 조직과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도구이다. 머신러닝, 텍스트마이닝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직원 이탈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잠재적 고성과자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시 말해, PA는 HR담당자를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전략가로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고 말할 수 있다.

### 1. 예측 변수 선택은 여전히 사람의 몫

PA는 알고리즘이 중심이지만, 그 기반에는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예측 모델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조직의 특성과 HR 담당자의 통찰력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직원의 근속 연수, 직무 유형, 업무 몰입도 등이 예측에 중요한 요소로 꼽힐 수 있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조합하고 활용할지는 사람이 설계해야 한다. 좋은 데이터와 예리한 변수 선택이 합쳐질 때 비로소 PA는 빛을 발하고, 조직이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 2. 당신이 이 조직을 언제 떠날 지 알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PA를 활용해 인재 유지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 벌써 10년전, 2015년에 닐슨(Nielsen)은 핵심 인재들의 이직 가능성을 분석하여 이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이직률을 2% 미만으로 낮추며 천만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했다. HP(휴렛팩커드)는 직원 개인의 이직 가능성을 점수화한 "Flight Risk Score"를 통해 이탈 위험이 높은 직원들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사례는 PA가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넘어 조직의 전략적 결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3. HR과 머신러닝의 만남

머신러닝 같은 AI 기술은 피플 애널리틱스를 통해 HR을 조직의 전략적 파트너로 변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라는 모델은 직원 데이터를 분석해 누가 이직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할 수 있다. 텍스트 마이닝은 사직서 같은 글을 분석해 직원들이 이직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런 예측 모델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때 머신러닝의 강점인 교차 검증 기법을 활용하면서 상관없는 예측변수를 버리고, 꾸준히 데이터를 검증하면서 예측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예측 모델을 검증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중히 얻은 결과물을 조직의 문화와 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직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 4.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Next HR은

#### 바로 당신!

MZ세대와 같이 다양성이 큰 세대와 함께 일하는 오늘날의 조직들에게 PA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직원의 이직을 예측하고 인재 유지 전략을 설계함으로써 조직은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즉, PA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넘어, 조직의 사람 중심 경영을 지원하는 강력한 파트너인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시대에 피플 애널리틱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비즈니스 통찰력, 데이터 분석 능력, 의사소통 역량,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이 필요하다. HR 담당자들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익히고 조직과 비즈니스의 이해를 심화하며 소통 기술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통해 조직의 인재 유지를 돕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이종학. (2023). 데이터과학과 인사조직의 융합: 피플 애널리틱스 튜토리얼.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9(3), 105-116.

2) 이상진, 김지영, 강지상 and 이종학. (2024). 텍스트마이닝(Text-mining)을 통한 People Analytics 연구 및 실무 필요 역량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31(3), 33-54.

# 한강의 노벨상 수상으로 본 AI 번역의 가능성

“ 기계번역과 윤문을 통한 유창성(Fluency) 확보 차원에서 ”

writer. 김웅수 (37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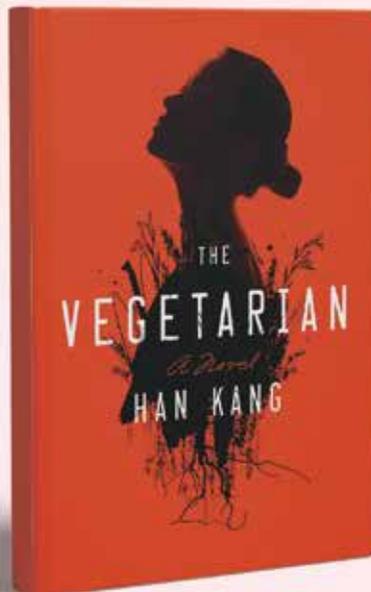


## #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로 작가 한강이 선정되었다.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과 같은 한 작가의 작품세계는 유럽의 현대 문학사조인 생태주의 문학(Ecological Literature)과 비슷한 점이 많다. 스웨덴 아카데미가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해 “신체와 영혼,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이 있다는 점을 노벨상 수상배경으로 설명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sup>1</sup>. 그러나 한 작가의 노벨상 심사과정에서 그의 독특한 문체를 영어로 잘 표현한 “번역”의 성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미 맨부커상(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을 수상했던 지난 2016년, 번역자인 데버라 스미스(Deborah Smith)가 주목받았고 특히 번역문에 대한 오역 논란을 통해 문학의 번역에 있어 ‘문장의 직접적 의미를 중시하는 번역’과 ‘감정과 톤을 전달하는 번역’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동시에 한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번역’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가장 대중화된 Chat GPT만 해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기존의 구글 번역 서비스 (<https://translate.google.com/>) 혹은 파파고 (<https://papago.naver.com/>) 와 같은 온라인 번역 툴에 비해 한층 세련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최근 대중화되기 시작한 퍼플렉시티 (<https://www.perplexity.ai/>) 나 구글 제미니 (<https://gemini.google.com/>), MS 코파일럿 (<https://copilot.microsoft.com/>) 등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 사실상 번역기의 역할이 생성형 AI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냐는 선부른 지적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한 작가의 사례에서 보듯 단순히 한국어 단어를 영어 단어로 옮기고 어순을 영어식으로 맞추는 것만으로 올바른 번역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번역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에 맞는 어순과 단어, 그리고 표현이 접목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 사용자들이 비슷한 의미와 사상을 전달해야만 한다. 따라서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번역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기계적 번역이 아닌, 전문 번역에 준하는 번역 효과를 뽑아낼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 AI 이론과 번역 이론은 사실은 뿌리가 같다.



사실 언어의 자동번역은 과거 프랑스의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가 창안한 구조주의 언어 학에서 출발했다. 소쉬르의 언어학은 흔히 랑그(langue, 무의식 수준의 언어체계)와 빠롤(parole, 시대와 장소에 따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의식 수준의 말하기)이라는 체계 하에서 언어기호를 시니피앙<sup>2</sup>(Signifiant, 기표)과 시니피에<sup>3</sup>(Signifié, 기의)로 구분하고, 이들 언어의 각 요소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계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소쉬르 사후 『일반언어학강좌(Cours de linguistique generale)』라는 저작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졌다(문경환 2007). 구조주의 언어학은 이후 노암 촘스키(Noam Chomsky)에 의해 생성문법이라는 이론으로 발전한다. 촘스키는 1950년대부터 변형생성문법 (TGG: Transformational-generative Grammar) 이론을 주장했는데, 이는 소쉬르를 필두로 한 기존의 구조주의/행동주의 언어학 이론이 인지주의 생성문법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뜻한다(문경환 2007). 특히 촘스키는 생성문법 이론을 통사론에서 의미론, 음운론으로 확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모든 언어의 심층구조는 같고, 언어 간 차이는 설정치(Parameter)의 차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언어의 기계번역 가능성을 열어준 최초의 이론이었고, 미 국방성에 의해 수용되어 시스템 언어를 영어로 정착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초기 기계번역은 규칙 기반 기계번역(Rule-based machine translation)이라 부르는 방식으로 원문과 번역문을 단어 단위로 나눠서 같거나 비슷한 뜻을 나타내는 단어를 목록화하고, 원문의 언어와 번역문의 언어의 언어규칙을 분석해 나온 문법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번역하는 방식이었다. 당연히 언어를 단어 단위로 나누는 방식, 언어의 문법규칙을 정리하는 방식 등은 촘스키의 변형생성문법 이론에 기반한 방식으로 적용되었고, 언어의 변화에 따라 언어규칙에 대한 수정과 추가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서보현, 김순영 2018, 김혜경, 윤소영 2019 재인용). 그러나 촘스키의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나 어셈블리어에서 영어 기반의 언어로 변환하는 데는 도움을 주었지만 기계번역의 발전에 있어서는 한계로 작용하기도 했다. 머신러닝에 있어서 질문을 단어 단위로 분해하고 배치하는 로직은 D-Structure, Logic Form, Phonetic Form, S-Structure 등 Chomskian Framework의 개념과 흡사하지만, 초기 기계번역 프로그램의 핵심이었던 챗봇은 엔지니어가 지속적으로 개입해 학습하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방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면 무조건 사람이 개입해서 예외를 계속 수정해줘야 했다. 무엇보다 번역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형태소 분석기, 구문 분석기, 번역사전 등 추가 자원을 필요로 했다(신지선, 김은미 2017, 김혜경, 윤소영 2019 재인용).

1. 한 작가의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추상표현주의의 거장 마크 로스코(1903~1970)와 관련된 시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적 성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글은 한 작가의 문학적 비평을 위한 글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의 문학사조에 관한 분석은 지양하고자 한다.
2. 표시하는 것. 시각과 청각이 받아들이는 언어기호의 감성적 측면. 예를 들자면 '신호등'이라는 글자 자체.
3. 표시되는 것. 언어체계 안에서 언어기호가 다른 언어기호와의 차이에 의해 형성되는 고유의 의미. 빨간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과 함께 있을 때 '정지'의 의미를 갖는 것이 대표적인 시니피에의 예시다.

## 머신러닝과 촌스키 생성문법

- 머신러닝 : 챗봇의 기본 Logic. 엔지니어가 개입해 지속적인 학습, 보정 역할 수행.
- 질문을 단어 단위로 분해하고 배치하는 Logic은 Chomsky의 생성문법론과 유사한 측면이 많음
  - \* 초기 Computing 이론에 촌스키의 생성문법 관련 이론이 많이 적용 되었음.



(Source: Towards data science, 메리츠금융증권, 성아연)

A language consists of two components: a lexicon and a computational system.

(그림 1. 머신러닝과 촌스키 생성문법 간 관계)

결국, 'Colorless green ideas sleep furiously.'처럼 문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의미 전달이 불가능한 문장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술은 방대한 양의 자연어 데이터 연산을 통해 자동적으로 응답을 만들어내는 대형 언어모델(LLM)<sup>4</sup>에 기반한 딥 러닝(Deep learning)이었다. 2세대 번역기술인 예문 기반 기계번역(Example-based machine translation)은 규칙 기반 기계번역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말뭉치(corpus)를 활용해 유사한 표현을 찾아내 번역하는 방식인데, 입력한 문장과 유사도가 높지 않아 번역 정확도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김운 외 2008, 김혜경, 윤소영 2019 재인용).

3세대 기술인 통계적 기계번역(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은 1988년 IBM이 통계기술을 기계번역에 적용하면서 구체화되었다. 통계학 기술을 이용해 말뭉치 DB 내의 언어를 분석한 뒤 언어의 통계적 관계에 초점을 맞춰 원문의 단어와 대응되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번역 대응어를 찾아내고 이를 이용해서 번역의 품질을 개선하는 방식이지만, 번역엔진 내의 말뭉치가 크면 클수록 번역 품질이 개선된다는 관점에서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 했다(황영숙 2010, 김혜경, 윤소영 2019 재인용).

4세대 기술인 신경망 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은 컴퓨터 공학,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발전에 따라 통계적 기계번역 기술을 발전시킨 방식이다. 입력된 말뭉치로 반복학습을 통해 기계번역 과정에서 틀린 부분을 자가수정하여 다음 번역에 반영하는데(최윤식 2016, 김혜경, 윤소영 2019 재인용), 이들 기술은 GPU를 활용한 병렬연산, 신경망이론을 통해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생성형 AI를 현실화하는 핵심기술로 떠올랐다. 따지고 보면, 이들 기술의 핵심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수많은 언어생활을 학습한 뒤 가장 비슷한 형태로 언어를 재구성하는, 어린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과 비슷한 방식이었으니, 이 기술을 활용한 기계번역이 기존의 방식과 비교해 언어의 유창성(Fluency)<sup>5</sup> 확보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 # 그래서 직접 AI 번역을 시도해보았다.

회사에서 새해부터 전사 언어원칙에 따른 회의자료 영문화를 추진하게 되어 그 시도의 하나로 한국어로 만들어진 보고서를 영문화하는 작업이 진행 되었다. 시간이 워낙 짧기도 했지만, 한국어

문서를 번역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이었다. 또 다른 목적 중 하나는, ChatGPT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해 만든 사내 생성형 AI 시스템 내 번역기능을 실험하는 목적도 있었다. 당초 이 원고를 구상했을 때는 번역 이론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런 이론적 발전이 생성형 AI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를 보여주는 쪽으로 가안을 구성했지만, 실제 직접 번역작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번역 과정에서의 번역엔진의 오류를 생성형 AI를 통해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가에 좀더 초점을 맞춰보기로 하였다.

회사의 사내 보안규정에 따라 사내 시스템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예시문을 구글 번역 페이지로 초벌 번역하고 이를 Perplexity로 윤문(Emblishing)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다\*. 원문인 한글 문장을 구글 번역 페이지에서 1차 번역한 것을 '초벌', 초벌 영문의 신뢰도 점검을 위해 동일 사이트에서 역번역한 것을 '역번역', 이후 초벌 문장 혹은 초벌 문장의 윤문작업을 '윤문'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 예시 1) '싸구려'

원문 : 싸구려 제품의 이미지를 개선

초벌 : Improve the image of cheap products

역번역 : 저렴한 제품의 이미지를 개선하세요

윤문 : Improve the image of low-cost products

'싸구려'와 같이 한국어로는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만 외국어로 번역이 어려운 경우는 번역 과정에서 맥락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구글로는 'cheap products'라는 어휘를 제안했으나, 저가 제품이라는 직역이 '싸구려'의 맥락을 설명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판단되어 perplexity를 통해 '싸구려'의 번역으로 적절한 어휘를 요청하였고, cheap products, low-quality goods, inexpensiveproducts, low-cost items 등 네 가지 어휘를 추천 받았다. 다시 이 어휘에 대한 예문을 추천받았고,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4. Large Language Model

5. 기계번역을 통해 나온 문장이 실제 원어민이 쓰는 말과 비슷하게 구성된 것

6. 사내 시스템이 ChatGPT 기반의 API를 적용하였으므로, 번역의 유사성 측면에서 검색 정확도가 높은 perplexity를 활용하였다.

## 예시

### 1. Cheap products :

"These cheap shoes fell apart after only a few weeks of wear."  
(이 싸구려 신발은 몇 주 신었더니 망가져 버렸다.)

### 2. Low-quality goods :

"The store specializes in selling low-quality goods at rock-bottom prices."  
(그 가게는 최저가로 저품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전문으로 한다.)

### 3. Inexpensive products :

"We offer a range of inexpensive products that are still durable and functional."  
(우리는 저렴하면서도 내구성 있고 기능적인 제품들을 제공합니다.)

### 4. Low-cost items :

"Many consumers are looking for low-cost items to save money during tough economic times."  
(많은 소비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돈을 절약하기 위해 저가 상품을 찾고 있다.)

"싸구려 제품"을 지칭할 때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상황이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inexpensive" 또는 "low-cost"와 같은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source: perplexity)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휘 추천을 근거로 나는 최종적으로 싸구려 제품을 low-cost products로 번역하였다.

## 예시 2) FTA '발효(發效)'

원문 : FTA 발효에 따른 기회와 위협

초별 : Opportunities and Threats of FTA Implementation

역번역 : FTA 이행의 기회와 위협

윤문 : Opportunities and threats originated by FTA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같은 법률에 준하는 외국과의 조약, 협정의 경우 비준(ratification), 발효(taking effect) 등과 같은 법률 용어와 함께 쓰여야 하지만, 기계번역을 사용할 경우 이런 용어가 바로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구글 번역에서는 implementation이라는 단어를 써서 '조약의 이행'으로 번역하였으나 이는 문장 의미 상으로는 FTA가 비준된 것인지, 혹은 비준 후 정식 발효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

이 문장을 perplexity를 통해 윤문하는 과정에서 '발효'에 대한 적절한 어휘를 제안하였으나 처음에는 fermentation (발효, 醱酵)와 같이 문맥과 맞지 않는 어휘를 제시하여 실패하였다. 나중에는 원문의 번역을 추천해주고, 번역어를 사용한 예시도 함께 보여달라는 명령을 통해 'opportunities and threats originated by FTA'라는 문장을 제안받았다. 이 문장에서 사용된 'originated by'는 '~로 인해 발생하는' 또는 '~로 인해 기인하는'으로 번역되는 어휘로 '발효(發效)'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FTA가 기회와 위협의 원인'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직역과는 상이함에도 이 문장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 예시 3) '순혈주의'와 '외부인사'

원문 : 기존의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외부인사를 영입

초벌 : Break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pure-bloodism and recruiting outsiders

역번역 : 전통적인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외부인사 영입

윤문 : Break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pure-bloddism and recruiting global acquisitions

순혈주의는 영어로 pure-bloddism 혹은 blood purity ideology로 번역된다. 구글 번역으로 제시된 번역어가 적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정을 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외부인사, outsiders였다. outsider 자체가 외부인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조직 내 '경쟁자'나 '문외한'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서 좀더 정확한 어휘의 적용이 필요했다. Perplexity에서도 처음에서는 outsider를 제시하였기에 적절한 용어를 추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그 결과가 좋지 못했다.

그래서 방식을 바꿔서 "야구에서 새로 영입한 다른 팀 에이스 혹은 중견선수를 일컫는 영어단어를 알려줘"라는 명령을 통해 Perplexity에서 새로운 단어를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장 입력 당시 예상한 단어는 veteran 이었지만, perplexity에서 제안한 단어는 놀랍게도 acquisition이었다. "Acquisition"이라는 단어는 선수의 가치나 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 선수가 팀에 새롭게 합류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제안을 근거로 해당 문장에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확실한 적용을 위해 "new acquisition이란 말을 기업 조직장 레벨에도 쓸 수 있는지 알아보고 예시도 함께 찾아줘"라는 명령을 입력했고 아래와 같은 예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예시

1. "Our new acquisition, Sarah Johnson, brings 20 years of experience in digital transformation to her role as Chief Technology Officer."  
(우리의 새 영입인 Sarah Johnson은 최고기술책임자 역할에 20년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가져왔습니다.)
2. "The board is pleased to announce John Smith as our new acquisition for the position of Chief Financial Officer."  
(이사회는 John Smith를 최고재무책임자 자리의 새 영입으로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3. "Our latest acquisition, Dr. Emily Brown, will lead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department, bringing her expertise in biotech innovation."  
(우리의 최근 영입인 Emily Brown 박사는 생명공학 혁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부서를 이끌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new acquisition"은 회사가 새로 영입한 중요한 인재를 강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해당 인물의 전문성, 경험, 그리고 회사에 대한 잠재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source: perplexity)

결과적으로 이러한 근거를 통해 최종적으로 '외부인사 영입'을 'recruiting global acquisitions'로 번역하였다. 이 문장에서 외부인사는 글로벌 경쟁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인사들이어서, global acquisition으로 표현함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고, 실제 자료 보고 시에도 유창성이 높다는 의견을 접수하였다.

#### 예시 4) 기술력 확보

원문 : 기술력 확보

초벌 : Securing technical capabilities

역번역 : 기술적 역량 확보

윤문 : Securing technological competence

구글 번역으로 제시된 'technical capabilities'나 'technological capabilities'는 모두 기술적 능력을 얻거나 확보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만, 상황에 따른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좀더 문맥에 정확한 표현을 얻기 위해 Perplexity를 통해 적절한 표현을 추천받았고 아래와 같이 다양한 예시를 추천받았다.

#### 예시

기업 환경에서는 "Securing technological competence"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술 습득을 강조하고 싶다면 "Obtaining technical expertis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기술 발전 과정을 나타내려면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capacity"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정 기술 분야에서의 숙련도를 강조하고 싶다면 "Establishment of technical proficienc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도, 단순히 "empowerment"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의 추천을 근거로 위에서는 기업 환경 차원에서의 기술력 확보라는 뜻에서 securing technological competence를 채택하였다.

#### 예시 5) 판매 한계에 봉착

원문 : 판매 한계에 봉착

초벌 : Sales are at a limit

역번역 : 판매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윤문 : Sales expansion is restricted.

기계번역에 있어 가장 곤란한 경우는 예시 5와 같이 번역문의 뉘앙스와 전혀 다른 문장이 생성될 때이다. 이 경우에는 구글 번역으로 적절한 문장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perplexity를 통해 해당 문장을 추천받았고, 'Limitations on sales expansion', 'Constraints on sales growth', 'Barriers to increasing sales', 'Limits to sales growth', 'Sales expansion ceiling' 등 다섯 개의 문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해당 문장의 맥락이 특정한 상품의 성장이 시장환경의 변화로 한계에 봉착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단순 문장 번역으로는 명확한 설명을 얻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전체 문장을 영역하고 이를 뉘앙스에 맞게 수정 요청하는 방식으로 Perplexity를 통해 추가 수정의견을 제안하여 최종적으로 윤문에 있는 문장을 제안받았다.

## # 결론 및 제언

이 글에서는 일부 예시만을 들어 설명했지만, 실제 번역 과정에서는 약 3일 동안, 50쪽 정도의 powerpoint 슬라이드를 생성형 AI 기반 번역 사이트와 생성형 AI 사이트를 통해 초벌 번역 및 윤문을 진행하였고, 그렇게 완성된 보고서를 사내 회의에서 소개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의 전반적인 반응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번역이 비교적 깔끔하게 완성되었다는 것과, 한국어를 직역한 것과는 달리 원어인이 작성한 문장에 가까운 느낌이었다는 등,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이런 반응을 얻은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 (1) 단순히 문장을 번역하는데 그치지 않고 역번역, 윤문 작업을 통해 문장을 다듬어서 유창성을 높였다.
- (2) AI를 통해 번역한 문장의 사용예시를 확인하여 최대한 문맥과 맥락에 맞는 어휘를 선택하였다.
- (3) 작성한 문장을 어법에 맞게 수정해달라는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생성형 AI가 영어를 윤문하도록 했다.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용자들이 인식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결국 언어 번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위의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적절한 결과를 얻기 위해 AI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한 명령을 직관적으로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 번역에 있어서도 AI가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명령을 내려 최대한 문맥에 맞는 문장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생성형 AI의 장점인 LLM에 기반한 딥러닝을 활용하여 제안된 문장이 사용된 사례를 확인함으로써 문장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필요한 부분은 AI가 직접 윤문하도록 하는 것은 AI 번역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AI 번역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한강 작가의 예처럼 단순한 언어의 맥락만으로 번역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장의 재해석을 통해 번역이 필요한데, 이는 AI 번역보다는 전문 번역가를 통한 번역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생성형 AI로는 '의미' 번역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도 '감정과 톤'을 함께 번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구문 혹은 한두 개의 문장 수준에서 정확도가 높은 AI 번역이 문단 이상 대량의 번역에서도 맥락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번역 모델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일상적 대화체 중심의 번역 외에도 학문적 문장이나 문학적 문장에서도 번역의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번역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문체, 사조 내지 어투를 포함한 전반적인 전문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번역 전문 빅데이터가 구축되고 이를 통한 AI 번역과 개선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식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번역의 양과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이번 실험의 긍정적 결과였다. 앞으로 번역 품질과 효율성을 꾸준히 개선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와 언어 빅데이터의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이번 실험에 활용되지 않은 다양한 서비스, 특히 딥스크 등과 같은 중국계 생성형 AI에서의 번역 품질 테스트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

## Source

- 김대중, 『「채식주의자」 번역 속 의역/오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번역가의 과제 연구』, 인문과학연구, 51호, 2016
- 김영신, 『이국화인가 자국화인가: 한강의「채식주의자」번역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37호, 2016
- 김운 외, 『자동번역 기술 동향 및 응용 사례』, 전자통신동향분석, 23권 1호, 2008
- 김혜경·윤소영, 『역번역을 통한 기계번역의 한계와 발전 가능성 제고: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동화와번역, 37집, 2019
- 문경환, 『소쉬르와 촘스키: 두 유형의 구조주의』, 기호학연구, 21권 1호, 2007
- 박은숙·박윤희, 『「채식주의자」번역을 통해 본 「번역가 브리프」 기능 연구』, 동서비교문학저널, 47호, 2019
- 박진임, 『문학 번역과 문화 번역: 한국 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에 나타나는 문제점 연구』, 번역학연구, 5권 1호, 2004
- 서보현·김순영,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유형 고찰』, 번역학연구, 19권 1호, 2018
- 소영현·배하은, 『한국문학 번역과 번역 비평의 가능성: The Vegetarian의 사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70집, 2024
- 신지선·김은미,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의 출현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18권 5호, 2017
- 이영경, 『소설가 한강이 "영혼의 피 냄새" 느낀 그림...서울에서 만나볼까』, 경향신문, 2024.10.15 09:27.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150600011>
- 이인규, 『「채식주의자」에 대한 데бора 스미스의 영어번역 어떻게 볼 것인가』, 번역학연구, 18권 3호, 2017
- 이재원·조신, 『코헤지은 중심 번역을 위한 기고 - 한강의 「소년이 온다」의 영어본, 독일어본, 그리고 중국어본을 중심으로』, 독어교육, 제89집, 2024.5
- 이지민, 『한강의 「채식주의자」영역본에 나타난 번역자 전략 연구 - 이중시점과 내포작가 관점에서』, 통역과 번역, 18(특별호), 2016
- 이형진, 『영어권 번역문학상의 특징과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외국문학연구, 93호, 2024.2
- 장은수·강혜란, 『[기고] "세계적 작가 올라선 한강...그 뒤엔 번역자들 헌신도 있었다" [한강 노벨문학상』, 중앙일보, 2024.10.15 11:4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3532>
- 최윤식, 『미래학자의 인공지능 시나리오』, 서울: 대성, 2016
- 황영숙, 『통계기반 기계번역 기술의 소개 및 최신 연구동향 분석』, 언어 사실과 관점, 25호, 2010

**“고객 데이터는  
(Customer Data)  
흘러야  
의미가  
있습니다.”**

writer. 임보배 (4371)



##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43기 임보배입니다. 저는 롯데백화점과 LG CNS에서 고객 데이터 기반 CRM 기획, 고객분석, 개인화 마케팅, 솔루션 구축 등의 업무를 11년간 담당했습니다. 지금부터 '고객 데이터'를 주제로 제가 경험하고 배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Chat GPT(LLM) 시대에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빅데이터가 있을만큼 데이터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고객 데이터 비즈니스 활용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흥미로운 주제일거라 생각하며 쉽게 서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Intro) 시작하며,

고객 데이터(Customer Data)는 기업이 고객과 연결되는 강력한 매개체로, 데이터가 실제로 가치 있는 인사 이트와 경험을 창출하려면 원활한 흐름과 지속적인 연결이 필수적이에요. 고객 데이터의 '흐름'이란 다양한 채널에서 발생하는 기록들을 수집하고 클렌징(전처리)하여 하나의 식별 가능한 값으로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Up to date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고객과 상호 소통하며 궁극적으로 고객 경험 개선이라는 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데이터는 정적이지 않고 동적으로 움직여야만 진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요. 즉, 기업이 고객의 다양한 접점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TPO(Time, Place, Occasion)에 맞게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때, 고객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고객' 데이터가 흥미로운 이유

고객 데이터가 흥미로운 이유는 큰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고객의 기본 정보부터 다양한 접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동이 각각의 퍼즐 조각이 되고, 이 데이터 포인트들이 모여서 퍼즐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고객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해 나가면서 처음엔 알 수 없었던 고객의 숨겨진 니즈와 선호가 드러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 [Tip]

고객 데이터의 기본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업에서 보유한 고객 데이터는 고객 개개인이 누군지 구분할 수 있는 식별 값(인당 1개의 Customer ID)이 부여되고, 이 식별 값을 기준으로 퍼즐 조각(고객 정보 및 행동)을 하나씩 연결해 나가게 됩니다. 수집 데이터의 종류에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Zero party data, 기업이 고객 동의 하에 수집하는 1st party data, 타기업을 통해 구매 혹은 공유받은 2nd party data, 비식별 데이터인 3rd party data가 있구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성별, 연령, 거주지, 회원등급, 관심상품, 객단가 등의 '고객 프로파일 데이터'와 방문이력, 회원가입, 상품검색, 상품조회, 장바구니, 결제, 이탈 등의 '고객 행동 데이터'로 구분하여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의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A고객은 동연령대 여성 대비 화장품 구매주기가 3개월이나 짧은 30세의 중로구 거주 여성 고객으로, 5만원 이하의 저가 색조 고관심군 세그먼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수집&정제&통합/세그먼트분류&프로파일링수행)

백화점 마케터는 A고객이 어느 날, 최근 유명모델 기용으로 핫해진 중고가 브랜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자사 온라인몰에서 최초로 발견하였고, 실제로 3일 후 오프라인 스토어 방문을 통해 상품을 추가로 탐색하고 실제 구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유입/탐색행동포착) 여러가지 지표 데이터 비교 분석을 통해 평소 소비 단가보다 비싸서 구매를 망설일 것이라는 insight를 얻은 마케터는 평소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모바일 APP 채널로 적절한 시점에 첫구매 할인 프로모션 캠페인을 발송하였고, 이 Action이 트리거가 되어 A고객은 드디어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데이터분석&개인화마케팅 수행/구매전환 행동 포착), 주문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리뷰 이벤트 참여를 독려하는 N차 마케팅으로 긍정적인 리뷰까지 등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긍정적반응&추천유도) 이후에는 리뷰 작성 리워드로 받은 현금성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구매한 화장품과의 연관상품을 온라인몰에 노출하여 추가적인 Up-selling까지 발생시켰고, 주기적인 멤버십 분석을 통해 충성도 관리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재구매&연계구매유도/충성도제고).



위 사례는 무심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고객이지만 고객 행동 사이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아 고객 경험을 개선해나가며 충성고객으로 만든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복잡한 퍼즐(다양한 탐색 경로) 속에서 숨겨진 그림(고객의 니즈 발견)을 시간순으로 완성하여 단계별 과제를 해결하는 것(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같죠. 위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고객' 데이터는 그 어떤 데이터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민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그 의미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출처 : <https://gustdebacker.com/customer-journey-map/>

## 동시에 '고객' 데이터가 어려운 이유

하지만 고객 데이터는 특별히 다루기 어렵기도 해요. 고객 데이터는 물류나 생산 데이터와 달리 고객 식별 가능성을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Customer ID를 통해 개인을 식별하고 활동을 추적할 수 있어 맞춤형 경험 제공에 유리하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부담이 큼니다. 고객 데이터는 다양한 접점에서 수집되며 이를 적절히 연결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제(데이터 3법 등)를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례만 봐도, 잘못된 데이터 처리로 인한 이슈는 그동안 쌓아온 고객의 신뢰를 한 번에 잃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공적인 데이터 활용은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전들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필자가 생각하는 'Customer Data Business' 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

### 1) From the Basic - 데이터 수집과 연결

고객 데이터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 오프라인 매장,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접점에서 수집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면, 단순한 정보 집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은 어디서 할까요? 식별 데이터를 담고 있는 CRM과 CDP, 두 가지 플랫폼만 간단히 언급할게요.

[Tip]

CRM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기록해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이름, 연락처, 거주지, 방문 및 구매 이력 등의 고객 프로파일 및 구매이력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요. 영업, 고객센터, 마케팅 등 다양한 부서에서 활용되며, 고객의 생애 가치(LTV)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불만사항과 피드백을 분석해 고객 중심 전략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CDP는 고객의 오프라인 구매, 웹/앱 온라인 구매 및 행동, 소셜 미디어 활동 등 더욱 다양한 채널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해 360도 관점을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주로 마케팅 자동화와 개인화된 고객 경험 제공에 활용되고 고객 행동 패턴을 분석해 관심사를 예측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고객 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 2) Never Miss Out - 데이터 클렌징(Data Cleansing)

아무리 좋은 플랫폼이라도 그 안에 적재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거나 중복되어 있다면 고객 경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분석 근거로 옳지 않은 마케팅을 할 바에는 아예 고객과 그 어떤 접촉도 하지 않는게 오히려 낫겠죠? 데이터 클렌징(Data Cleansing, 전처리)이란 데이터의 중복 제거와 오류 수정, 최신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확한 고객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흔히들 이 과정을 간과하는데, 이 과정은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어 비즈니스에 데이터를 사용할 때 필요한 품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업이 AI 모델을 도입하여 분석을 할 때, 클렌징된 고품질의 데이터는 더욱 정확한 예측과 개인화된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죠. Never Miss Out!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는 거친 원석에 불과해요. 데이터 정제는 그저 데이터를 깔끔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이 더 정교하게 수립되는데 필수적인 단계랍니다.

### 3) Timing is Everything - 실시간(Real-time) 활용의 가치

그렇다면 결국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겠죠. 즉 데이터의 'Timing'이 핵심 요소입니다. 고객의 행동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Real-time data)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적시에 개인화된 제안을 제공하거나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특정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기(Add to Cart)'했지만 구매하지 않은 경우 실시간으로 알림이나 할인 제안을 제공하거나, 결제 단계에서 에러가 났을 때 Help 팝업을 노출해 줄 수 있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면 고객 경험이 더욱 개선되고, 고객과 기업 간의 신뢰 관계가 구축됩니다. 여기에 AI와 접목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더해지면, 고객의 행동을 예측해 개인화된 제안을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 활용성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실시간 활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이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궁금'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Timing'은 정말 중요합니다. 버스가 이미 떠난 뒤에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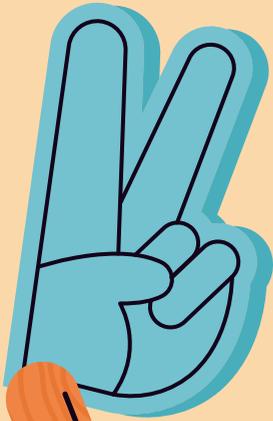


### (Outro) 마치며,

고객 데이터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기업과 고객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자산이지만, 결국 데이터는 재료일 뿐 비즈니스를 완성하는 것은 활용하는 기업(사람)에 달려있습니다. 기업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 클렌징(전처리), 연결, 실시간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잘 수행해야만 고객의 니즈를 예측하고 Pain-Point를 해결하면서 신뢰와 충성도를 쌓으며 궁극적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죠. 앞서 여러 번 언급했듯, 가장 중요한 건 고객 데이터는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야 의미가 있고 이 흐름 속에서 기업은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고객 데이터의 유기적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과제에 그치지 않고,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키워가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일 것입니다 :)

# 야구가 취미에서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의 이야기

writer. 고정석 (15기)



...



이 글은 제 인생에 야구라는 스포츠가 취미로 자리잡은 후 사업으로 이어진 과정을 시대순으로 추억하며 정리하는 차원에서 작성했습니다. 취미였던 야구를 사업으로 전환해 뛰어난 이상, 나름의 경력으로 기록하고, 사업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스스로 응원하는 차원에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는 2010년 3월에 IMBA 15기로 입학해 2012년 2월에 졸업하였습니다. 1996년부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팀에서 18년, 시스코 시스템즈 코리아에서 2년 정도 근무한 이후 성균관대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석사 졸업, 박사 과정을 마쳤고 현재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사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야구라는 스포츠는 제가 1982년 '꿈을 심는 야구단' 해태 타이거즈 어린이 회원 가입부터?, 아니 그 이전 고교 야구로 유명했던 군산상고 야구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가장 중요한 취미가 되었습니다. 군산상고 교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야구장에 가고 선수를 한 명씩 알게 되었고, 시멘트 포대로 글러브를 만들어 야구하던 그때는 제대로 장비를 갖추고 선수처럼 던지고 치고 달리는 게 큰 소망이었습니다. 김용남, 김종윤, 김성한 등 해태의 원년 멤버 몇 명은 저희 아버지가 담임을 하셨다 했고 선수들이 쓰다 다 헤진 글러브나 야구 공을 한두개 갖다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야구와 함께 자라나서 해태가 왕조라 불리며 전성기를 구가하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야구가 잠시 관심 밖이었으나, 1999년 LG 트윈스의 열성 팬인 아내를 만나고 교회 청년부의 사회인야구팀 '남서울 유니티드'를 창단하면서 다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후 회사 팀과 교회 팀에서 야구를 계속했고, 해태가 없어진 후 기아 타이거즈를 꾸준히 응원하면서 LG 트윈스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시즌 내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야구를 보며 웃다가 화내고, 다시는 야구를 안본다는 다짐도 몇 번씩하고, 그러다 다시 TV 앞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여러 번 있었죠. 야구팬이라면 모두 공감하지요? 그래도 잊을 만 하면 한 번씩 우승하는 팀을 응원하는 건 작은 보람이자 꽤 큰 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IMBA 졸업 후 유생스가 창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OB로 참가하여 한두 해 경기를 했지만, 2013년에 잘 다니던 회사를 나와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고 다시 경제적인 안정을 찾기까지 어떠한 취미도 사치였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2019년에 회사 창업을 했고 2020년대 초반 코로나를 겪으며 동호회를 통한 사회 활동이 고파져서 다시 운동을, 야구를 열심히 하자고 다짐한 이후 지금까지 유생스 OB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화성시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오래 하였고, 다양한 지역 모임을 하며 동네 카페에서 봉사하며 보드게임을 빌려주는 '빌리 보드' 사업과 보드게임 제작 및 교육을 활발하게 할 만큼 보드게임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꾸준히 교육이 요청되고 있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차별 인식 개선, 민주시민의식 교육용 보드게임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저 못지 않게 야구를 좋아하며 LG를 열렬히 응원해 왔습니다. TV 스포츠 채널마다의 야구 하이라이트 프로를 다 섭렵하고 야구 규칙을 가지고 저와 토론하던 2019년 어느 날 야구를 보드게임으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얘기한 것이 보드게임 사업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와 볼, 타격을 주사위로 구성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듣고 난 이후 계속 그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 직후 포볼(볼넷)의 영어 표현 '베이스 온 볼스(Base on balls)'와 Board game을 결합한 '베이스 온 보드(Base on Board)'라고 야구 보드게임의 이름을 붙여서 정식으로 상표를 출원, 등록하였습니다. 2019년을 기억하는 이유는 같은 해 가을 미국 워싱턴 DC에 갈 일이 있어서 미국 현지인들에게 그 어감을 물었더니, 하나같이 참신하다거나 새롭다, 잘 지었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야구라는 스포츠는 베이스가 보드가 되고 윗놀이 같은 보드게임의 말이 주자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투수가 던지는 공의 경우의 수, 스트라이크와 볼, 삼진, 몸에 맞는 공, 타격 후 파울과 안타, 홈런 등 나올 수 있는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의 적절한 전략 카드 사용도 보드게임의 규칙과 같다는 점에서 충분히 야구를 보드게임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것을 바로 첫 번째 국내 특허로 출원하였지만 가장 큰 고민은 볼카운트와 점수를 어떻게 기록하는게 가장 좋을까였는데, 6개월 동안 계속 고심한 결론은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하고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해 온라인으로 올리자는 것이었습니다(두 번째 특허). 저는 어려서부터 전자오락실(아케이드 게임)을 많이 다녔고, 지금도 MAME을 통해 갤라가와 테트리스, 햄버거, 펑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게임을 마치고 나면 마지막에 최고 점수가 기록되고 자기 이니셜을 저장하는 것이 떠올라서, 승패의 기록을 여기에 적용해 모든 사용자의 개별 아이디와 좋아하는 프로야구 팀으로 저장해 그 성적을 팀별 랭킹으로 적용해 보자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세 번째 특허로 출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자 진루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며 카드 사용 규칙과 순서를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투수 주사위, 타격과 안타 주사위, 공격카드, 수비카드 구성과 말(마커)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행복한 고민은 계속되었지만 언제나 정식으로 제품이 나올 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던 2024년 초, 우연히 CES 2024 자료를 보았고 언젠가 내 제품이 거기에서 선별 수 있는 날이 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하죠, 꾸준히 주자 진루를 결정하는 조건과 경우의 수를 뽑고 확률로 정리를 계속하며 구상을 계속하던 중, CES 2025 혁신상을 컨설팅하는 기업을 알게되어 바로 설명회에 신청하고 6월에 열린 그 행사 참석하였습니다. CES 혁신상 컨설팅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자신감을 갖고 한 번 도전해 보자고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신청에 필요한 개념 정리와 기본 자료, 동영상 제작 등 급속하게 진도를 내게 됩니다. 30개가 넘는 신청 대상 Category 중에서 Game & eSport와 Content & Entertainment 2개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이때 마침 한참 심취해 있던 생성형 AI 중 Claude를 200% 활용해서 Engineering, Design, Innovation 각각의 Description과 영상 나레이션을 모두 영어로 원활하게 작성해 냈습니다. Claude가 없었다면 모든 자료와 전략 카드의 야구 용어를 변경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컨설팅이 도움이 된 건 맞지만, 모든 세부 내용을 영어로 스스로 준비해야 할 때 생성형 AI의 도움으로 마치 성공이 예정된 것처럼 모든 조건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기한 내 신청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꼭 데드라인이 정해져야만 바쁘게 움직이는 습관은 여전히었지만 그래도 그게 뭔가를 실행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해 주는 원동력이 바로 'CES 2025 혁신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CES 혁신상 컨설팅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자신감을 갖고 한 번 도전해 보자고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신청에 필요한 개념 정리와 기본 자료, 동영상 제작 등 급속하게 진도를 내게 됩니다. 30개가 넘는 신청 대상 Category 중에서 Game & eSport와 Content & Entertainment 2개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이때 마침 한참 심취해 있던 생성형 AI 중 Claude를 200% 활용해서 Engineering, Design, Innovation 각각의 Description과 영상 나레이션을 모두 영어로 원활하게 작성해 냈습니다. Claude가 없었다면 모든 자료와 전략 카드의 야구 용어를 변경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컨설팅이 도움이 된 건 맞지만, 모든 세부 내용을 영어로 스스로 준비해야 할 때 생성형 AI의 도움으로 마치 성공이 예정된 것처럼 모든 조건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기한 내 신청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꼭 데드라인이 정해져야만 바쁘게 움직이는 습관은 여전히었지만 그래도 그게 뭔가를 실행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해 주는 원동력이 바로 'CES 2025 혁신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혁신상을 신청은 했지만 막상 수상에 대한 기대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월 말일에 선정 결과 발표 메일을 받고는 정말 될 듯이 기뻐고 우리 부부의 아이디어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언감 생심이었던 CES 참석과 전시까지, 내친 김에 저질러 보자는 무모한 결정을 또 하게 됩니다.

[참고] CES 혁신상: <https://www.ces.tech/ces-innovation-awards/innovation-awards/>



베이스온보드 수상: <https://www.ces.tech/ces-innovation-awards/2025/base-on-board/>

그 이후는 일사천리로 디자인과 시제품 제작, 모바일 앱 개발 그리고 현지 장소 계약과 부스 디자인 등의 과업을 속전속결로 처리하였고, 컨설팅 회사 루커스 인터내셔널과 해외시장 진출 전략 컨설팅 계약과 부스 임차 계약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타겟 고객 정의와 해외 시장 사이즈 조사, TAM/SAM 조사와 SOM 결정, IR 자료 작성 등 마케팅의 ABC를 하나씩 실행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잠깐, CES 2025 현장 사진과 함께 그곳에서의 반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네시안 익스포, 그곳과 연결된 라스 베가스 상정인 카지노



전시장 내 공사중인 상태와 완공된 디케이랩 전시 부스 56142호



혁신상 쇼케이스에 전시된 베이스 온 보드 시제품 및 혁신상 상패

38  
39



첫 번째 유료 고객인 베네시안 엑스포 직원 Andy와 내방한 일본 도쿄돔 관계자들



Andy가 집에서 아내와 2시간 넘게 즐기는 모습 (계속 많은 피드백을 주고 있음)



서울대, 서울과기대 학생들, 그리고 야구와 보드게임에 진심인 여러 방문객들

참고 기사: "LG팬 아내와 기아팬 남편의 야구 사랑, CES2025 혁신상으로!..."

하이브리드 야구 보드게임 '베이스 온 보드' 미국시장 정조준 < 산업 < 기사본문 - 에이빙(AVING)

<https://kr.aving.net/news/articleView.html?idxno=1796982>

CES 2025 전시 현장에서의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Cool!, Awesome!, Very clever! 등의 찬사를 받았고, 가격은 얼마냐, 어디서 살 수 있냐, 당장 구매할 수 있는지의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지 도미니칸 리그 선수라는 이는 즉석에서 1,000개 주문을 내기도 했으나 아직 양산 전이라서 계약이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Amazon, Tik-tok, SF 자이언츠, 도교돔(일본), 대만, 미국의 여러 디스트리뷰터와 마케팅 인플루언서, 게임 리뷰어 등 다양한 사업가와 미팅을 했고 계속 연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쇼케이스에 전시된 것을 보고 찾아왔다는 포항공대 학생은 디케이랩이 한국 기업이라 놀랍고 더 반가웠다고 하며 바쁜 일정 속에서 2번씩 찾아와 게임을 하였습니다. 서울대, 서울과기대, 한전공대 등 한국 학생들이 특히 더 좋아해서 국내 출시에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전시 기간 중 4개 대학 팀간 토너먼트를 열자고 해서 준비하였는데 각자의 짧은 일정 탓에 그것도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한국에서 다시 대회를 열 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참여한 CES 2025 전시는, 상상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순간의 아이디어를 캐치하여 정식 게임으로 발전시켰고, 그것을 정교하게 다듬어 세상에 선보였을 때 그 상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구와 보드게임의 결합에 호감을 보였다는 것과, 참석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사위와 모바일 앱으로 볼카운트와 스코어를 기록한다는 컨셉을 듣는 순간 눈이 반짝이고 감탄하는 ‘아하 모먼트’를 제가 직접 확인하였기에, B2C 사업 성공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준비한 CES에서는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정상적인 사업 궤도에 올리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양산을 위한 부품 조달과 단가 협의, 미국 내 물류 운영사, 현지 법인 설립, 마케팅 플랜, 디자인 업그레이드 및 기 출원한 PCT 3건을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정식 특허 출원과 디자인 추가 출원, 그리고 투자 유치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홍보와 운영 자금 조달 등 할 일이 태산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즐겁게 하나하나 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시장 조사 결과 프로야구 팀은 전 세계에 20개 나라, 18개 리그에 180여 개가 있습니다. 아마추어 팀과 마이너 리그 팀을 다 뺐을 순 없지만, 잠재 시장은 그것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모바일 앱으로 그 국가와 프로 리그 및 팀을 선택할 수 있게 개발했기 때문에, 게임 세트를 구매하고 야구 보드 게임을 즐기면서 스마트폰 앱으로 매 회의 안타(H), 에러(E), 득점(R), 사구(B)의 기록과 승패/승률을 개별 아이디와 미리 선택한 나의 팀 기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팀별 랭킹을 비교하며 순위 경쟁을 하는 재미를 더할 수 있으므로 향후 데이터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크며 CES 이후 미국 데이터 기업과 온라인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것을 CES 판정단에서도 혁신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전자 주사위 개발과 실제 MLB 데이터 연동, 제품의 기본형/고급형 분리 전략 등의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CES를 통해 한국의 보드게임 카페와 유사하지만 훨씬 규모가 더 큰 미국 보드게임 문화도 잘 이해하게 되었고 미국의 야구팬, 보드게임 팬 그리고 일본과 대만, 중남미의 열렬한 야구팬에게 우천 취소나 스톱 리그 기간에도 재미와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세트의 마커(말)를 각 팀의 마스코트나 실제 선수 유니폼 디자인을 입히고 보드 디자인을 팀별로 다르게 장식해, 전 세계 180여 개 프로야구 팀의 굿즈로 판매하는 날도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보드게임의 대명사인 ‘모노폴리’에 버금가는 야구 보드게임의 스테디셀러가 되도록 ‘베이스 온 보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중동에도 야구 붐이 일고 있습니다. Baseball United가 그것인데, 전직 MLB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 아랍 에미리트와 인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4개국에 프로 야구팀을 창단해 역사적인 첫 경기가 2월 14일에 개막됩니다. 축구와 골프에 이은 ‘오일 머니’가 야구에도 유입되고 있어 머잖아 두바이로 출장가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중동 프로야구 리그 ‘베이스볼 유니타이드’ (<https://www.baseballunited.com/>)

# AI시대, HBM이 최적의 솔루션

writer. 송혜민 (40기)

## AI시대의 도래

이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 뗄레야 뗄수 없는 단어가 있다. 바로 AI(Artificial intelligence)이다. AI는 인공지능의 기술로 다양한 산업군에 접목시켜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프로세스를 처리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제조업은 물론 금융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 모든 프로세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결국에는 방대한 양의 Data와 여러가지 Factor를 기반으로 진행을 해야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담아 내고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HBM(High Bandwidth Memory)기술이 대두 되면서, 현재 HBM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NVIDIA, AMD,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HBM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기술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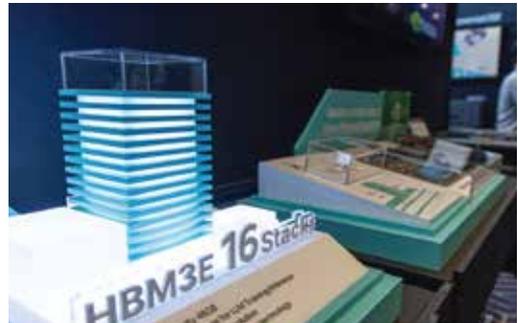
## 2030년 1조달러 규모의 반도체 시장 달성, 이 중 70%는 AI

AI 및 고성능 컴퓨팅(HPC) 시장의 확장과 함께, HBM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기존 주 매출로 자리 잡았던 PC, Mobile의 시장은 점차 떨어지고 있지만, AI 관련된 서버 및 관련 디바이스들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향후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2030년에는 1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중 2030년 반도체 시장의 70%는 AI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SK하이닉스는 HBM3E 16단의 Proto type을 CES2025에서 최초 공개 했다. 또한 주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요청에 의해 기존 25년 말경으로 진행 하기로 했던 HBM3E 16단의 양산 일정을 보다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장비사인 도쿄일렉트론 또한 AI 시대에 맞는 고객사의 최선단 장비의 교체 및 개발 수요에 맞춰 5년간 1조 5000억 엔을 R&D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AI 시대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출처: 'SK AI 서밋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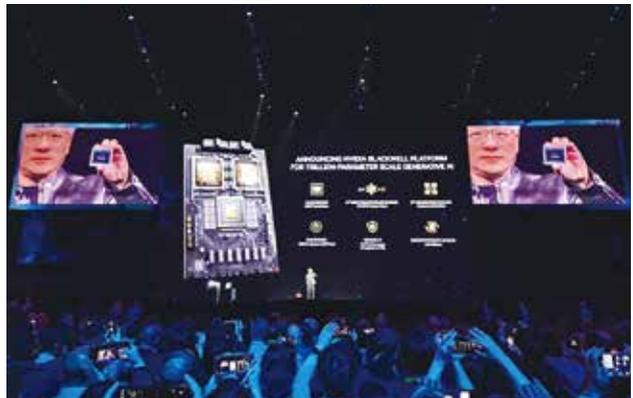
## HBM의 구조, 성공의 열쇠는 패키징 기술

HBM의 구조를 알면 해당 내용을 이해 하기 수월하다. HBM(High Bandwidth Memory)는 고대역폭 메모리이다. 엔비디아는 기존의 그래픽 카드 병렬 구조를 AI 칩에 적용을 하였다. 그렇다, 이는 발상의 전환이다.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의 고민에서 부터 시작된 구조이다. HBM는 각 데이터의 병목현상에 의해 처리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격은 비싸지만 8~16단의 Die를 3D구조로 쌓아 한번에 처리가 가능한 Accelerator를 만든 것이다.

24년 10월 엔비디아에서는 차세대 AI 플랫폼인 블랙웰(Blackwell)을 발표했다.

블랙웰은 상단에 두 개의 GPU와 중앙에 하나의 CPU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플랫폼에는 GPU에 8개의 HBM3E 메모리 모듈이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는 AI 추론 능력을 최대 30배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HBM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적층 단수 증가, 대역폭 증가, 전력 소비 감소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 GTC 2024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24년 3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SAP센터에서 열린 GTC 2024에서 인공지능(AI) 추론 능력을 향상시킨 '블랙웰' 플랫폼을 소개했다.

## 1. HBM 세대별 주요 특징 및 적층구조

세대	주요 특징	대역폭	적층 구조
HBM1 (2015)	최초 HBM 표준	128GB/s per stack	4단
HBM2 (2016~2019)	대역폭 및 전력 효율 향상	256~512GB/s	8단
HBM2E (2020~2021)	고대역폭, AI용 최적화	460GB/s~1TB/s	8~12단
HBM3 (2022~2023)	AI 및 데이터센터 초고속 메모리	1TB/s 이상	12단
HBM3E (2024~2025)	AI 최적화, 고대역폭 & 저전력	1.2TB/s 이상	16단
HBM4 (2026 이후)	하이브리드 본딩 적용	1.5TB/s+	16단 이상

세대를 거듭할 수록 계속해서 더 높은 적층을 구사해야하며 이는 고난이도의 패키지 기술을 요한다. Die 와 Die를 접합을 하는 기술을 본딩(Bonding)기술이라 하는데, 이 기술이 HBM은 핵심이다. 접합 기술은 국내기업 SK하이닉스와 삼성이 다른 기술을 접목하여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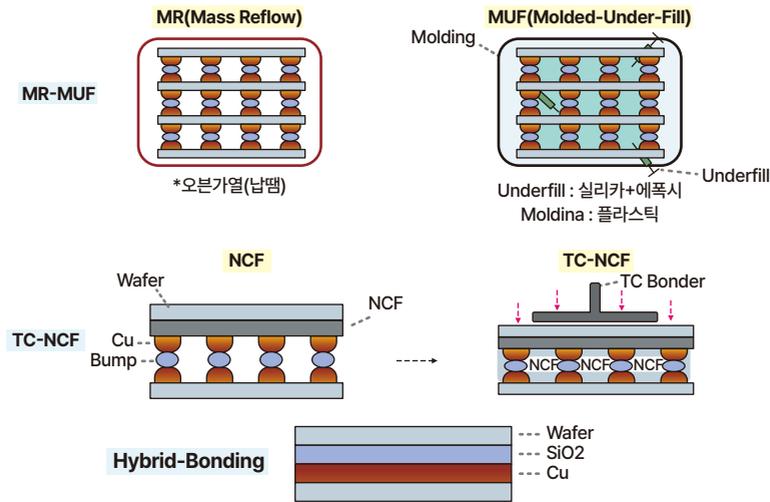
## 2. MR-MUF와 TC-NCF의 공정설명 및 특징

구분	MR-MUF (Mass Reflow-Molded Underfill)	TC-NCF (Thermo-Compression with Non-Conductive Film)
사용 기업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공정 방식	칩을 적층한 후, 대형 오븐에서 리플로우 공정을 통해 접합. 이후 액체 보호재(언더필)를 주입하여 칩을 고정	비전도성 필름(NCF)을 칩 사이에 삽입한 후, 열 압착(Thermo-Compression) 방식으로 접합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층 단수가 증가해도 높은 수율 유지</li> <li>- 기존 공정과의 호환성이 높음</li> <li>- 대량 생산 시 비용 효율성이 좋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칩 간 접합 신뢰성이 우수함</li> <li>- 칩의 휘어짐 및 깨짐 현상 방지</li> <li>- 얇은 패키지 구현 가능</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칩 간 정렬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li> <li>- 언더필 재료의 특성상 신뢰성이 낮을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 시간이 길고 생산 비용이 높음</li> <li>- 적층 단수가 증가할수록 수율 저하 가능성</li> </ul>
HBM 적용 사례	HBM2E, HBM3, HBM3E (16단까지 적용)	HBM2E, HBM3, HBM3E (12단까지 적용)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BM4 및 HBM4E에서도 MR-MUF 공정 유지 예정</li> <li>-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BM4에서 TC-NCF 개선 예정</li> <li>-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전환 가능성</li> </ul>

SK하이닉스는 MR-MUF 기술을 채택했다. 일본 소재사 '나믹스'와 언더필(Underfill) 부분 독점 계약을 하여 공급을 안정화 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R&D를 진행하며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 투자와 연구의 결과로 지금은 고객사 엔비디아의 인정을 받으며 순항 하고 있다. 또한 TSMC의 기술적 협업을 통해 세계 주요 경쟁사를 제치고 반도체 선진 기술의 주도권을 잡아 가고 있고자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TC-NCF를 채택하여 장비사 '세메스'와 소재사 '레조낙'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의 니즈에 맞춰 제품을 제때 생산하는 플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개발자와 고객들의 VOC를 적극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지 원가절감만을 외쳤던 구 경영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것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개발에 투자를 제때 하지 못했기에 벌어진 문제로 작가는 분석한다.

현재는 MR-MUF와 TC-NCF에 의존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16단~20단을 넘어서는 구조에서는 기존 방식으로는 본딩이 어렵기에 Hybrid Bonding의 적층 방식을 검토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한미반도체나 ASMP, 세메스와 같은 글로벌 회사들은 해당 반도체 장치를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칩 메이커 회사에게 평가(Qual)를 받기 위해 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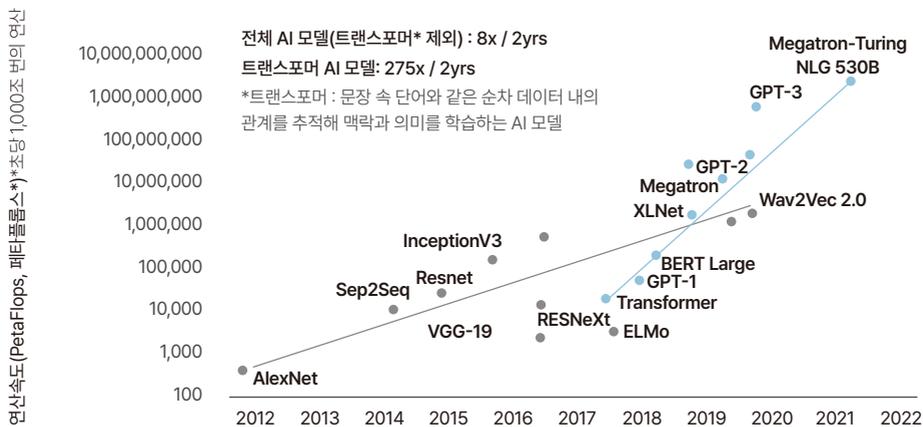
▲출처: TakeLsnb의 블로그 MR-MUF / TC-NCF / Hybrid Bonding의 구조 이미지

### 앞으로의 우리의 자세는? '도전'과 '혁신' 정신이 필요

많은 반도체 전문가들이 이제는 무어의 법칙이 깨졌다고 이야기 한다. 컴퓨팅 성능이 올라가고 더 빠른 연산속도를 요구하는 시대다. 이제는 무어의 법칙을 넘어선 속도로 발전해야한다.

\*무어의 법칙(Moore's Law): 반도체 칩의 집적도가 18~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이 향상되면서 비용이 감소한다는 법칙

### 컴퓨팅 성능 동향



▲출처 :엔비디아 GTC2022 Keynote 발표자료 '컴퓨팅 성능동향'

성아연 연구회가 생긴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3년 전 새롭게 성아연이 만들어졌을때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IT가 생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연령층이 낮은 분들이 대다수였던 젊은 연구회로 기억한다. 그러나 이제는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작가는 얼리어답터로서 성아연 연구회의 3대 회장을 맡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든 분야에 다방면으로 AI를 접목한 기술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제는 이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에 AI는 나와는 관련이 없는 정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공부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IMBA 출신이라면, 성아연 가입은 필수!)

### **고민 말고 도전해야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물론 의사결정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긴 하겠지만 현 AI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한다.

삼성전자는 2024년 10월,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 돌자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은 고객, 투자자,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 걱정을 끼쳤다"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2019년 4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가졌던 삼성전자였는데,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진행 되었을까? 알다시피 반도체 산업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던 인텔의 몰락만 보더라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뛰어보았으면 한다.**

지속적으로 앞치락 뒤치락 하는 세계 경쟁 속에서 초심을 잃지않고 다시 일어서 일궈나간다면 다시 2번째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열정을 다해 도전한다면 분명 희망은 있을 것이다. 또한 협력사와의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반도체 에코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잃어버린 고객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조금 더 친위적인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지속적인 R&D 투자로 한층더 성숙해진 한국반도체의 성장을 기대해 본다.



# 놀면 뭐하니? 어플이나 만들어야지!

writer. 손성완 (41기)



## 아이디어는 불편함에서 나온다

명함관리 어플을 사용하는 동안 나는 한 가지 불편함을 느꼈다. 명함을 한 장씩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제한 때문이었다. 행사나 모임에 나가면 명함을 수십 장씩 받아오곤 하는데, 이를 하나씩 인식시키는 과정은 정말 번거로웠다.

이 불편함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생각했다. '명함을 한 번에 인식하는 어플이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명함을 사용하면서 또 다른 문제점도 발견했다. 명함에 적힌 정보만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그래서 명함보다 더 디테일한 프로필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비집 프로젝트였다.



## 작은 시작, 큰 기회로

처음에는 개인 프로젝트로 간단히 만들어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우연히 회사와 직원들 모두에게 "비집"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효율적인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 싶어 했고, 직원들은 새로운 개발 트렌드를 익히고 경험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비집" 프로젝트를 단순한 개인 작업이 아니라, 회사의 토이 프로젝트로 확장 시키기로 했다.

프로젝트를 위해 회사 내에 TF팀(Task Force Team)을 꾸렸고, 가장 중요한 목표로 **\*\*최대의 가성비\*\***를 설정했다. 제한된 인력과 자금으로 얼마나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도전하는 일이었다. "비집" 프로젝트는 비용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험이기도 했다.

## 놀면 뭐하니

TF팀을 꾸리는 데 큰 고민은 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회사 내에는 클라이언트 프로젝트 사이에 공백기가 있는 인력이 있었다. 이들은 잠시 업무 할당이 없는 상태였고, 이를 활용하면 적절한 가성비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놀리는 인력은 곧 자원이라는 생각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했다. 덕분에 "비집" 프로젝트는 서두르지 않고 프레임워크 준비부터 차근차근 계획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효율적인 협업과 개발을 시도하는 데 있었다.

## 유행에 뒤쳐질 수 없지

"비집" 프로젝트는 토이 프로젝트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흥미를 느끼며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기술 선택에 특히 신경을 썼다.

백엔드는 최근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채택하고 있는 \*\*코틀린(Kotlin)\*\*과 \*\*스프링 부트(Spring Boot)\*\*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직원들이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프로젝트의 개발 속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크로스 플랫폼으로 효율 극대화 "비집"은 애플의 App Store와 구글의 Play Store에 모두 출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가성비였다. 두 플랫폼의 앱을 각각 개발하고 운영할 자원은 한정적이었기에, 크로스 플랫폼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크로스 플랫폼을 활용하면 한 번의 개발로 두 플랫폼에서 모두 작동하는 앱을 빌드할 수 있다. 이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었다.

많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크로스 플랫폼 기술 중, 우리는 Meta가 밀고 있는 React 기반의 React Native를 사용하기로 했다. React Native는 비교적 학습 곡선이 낮으면서도, 빠르고 효율적인 앱 개발이 가능해 우리 프로젝트의 성격에 잘 맞았다.

"비집"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여러 장의 명함을 한 번에 인식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앱 개발을 넘어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는 흥미로운 도전이었다.

먼저, 명함을 구분하기 위해 각 명함의 모서리 좌표를 추출해야 했다. 이를 통해 이미지 속에서 명함의 위치와 형태를 판별할 수 있었다. 이후, 명함에 적힌 글씨를 데이터로 치환하기 위해 OCR(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적용했다.

그러나 단순히 텍스트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조화된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 자연어 처리(NLP) 기법도 사용했다. 이를 통해 명함에 적힌 이름, 직함,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머신 러닝에 대해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여러 AI API 서비스(예: Google Vision, AWS Rekognition, Microsoft Azure 등)를 비교하고 탐구하며, 각 기술의 강점과 한계를 체감할 수 있었다.



## 가성비와 딜레마

"비집" 프로젝트를 가성비를 최우선 목표로 진행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본과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게 느껴졌던 것이다.

만약 자원을 더 투입했다면 출시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었고, 진행이 지연되면서 참여한 구성원들의 텐션도 점차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기능을 완성하지 않더라도 베타 버전을 먼저 출시하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 전략 수정은 효과적이었다. 출시 디데이가 잡히자 팀원들의 집중도와 동기부여가 눈에 띄게 올라갔다. 프로젝트가 인하우스에서 진행되었기에 가능한 유연한 결정이었다.

가성비 프로젝트의 양면성은 분명했지만, 장점도 명확했다. 낮은 비용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낮아졌고, 이는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실패하더라도 "빨리, 작게 망하는" 린(Lean)한 사업 전략을 경험하며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회사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프로젝트를 마친 TF 팀 구성원들은 다시 본업으로 복귀했지만,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다른 구성원들이 스테디와 개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이다. 가성비를 극대화한 이 경험은 앞으로의 프로젝트에서도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미래를 향한 한 걸음

비집 "비집"은 단순히 가성비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를 넘어, 회사와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 뜻깊은 경험이었다.

앞으로 "비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확장하고 성장하는 인맥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 원우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비집이 만들어갈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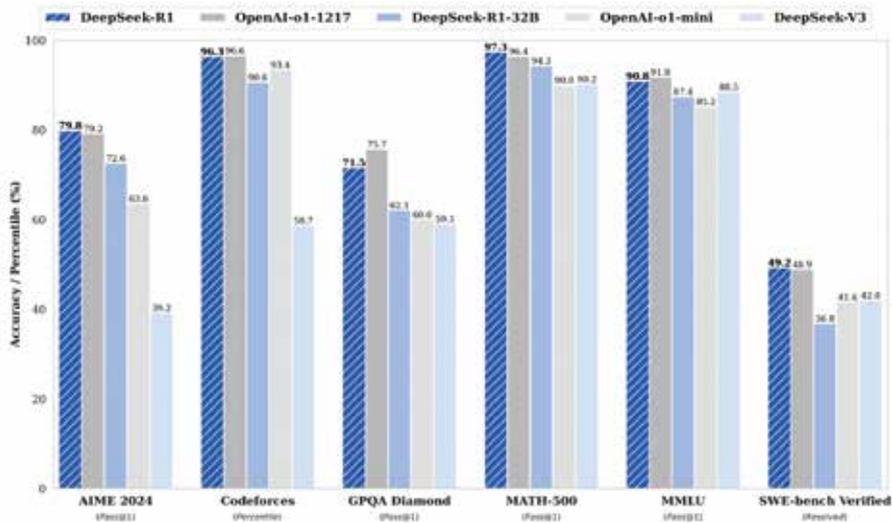
# Deepseek와 Qwen의 의미, 그리고 중국 시와 IT 산업의 미래

writer. 김응수 (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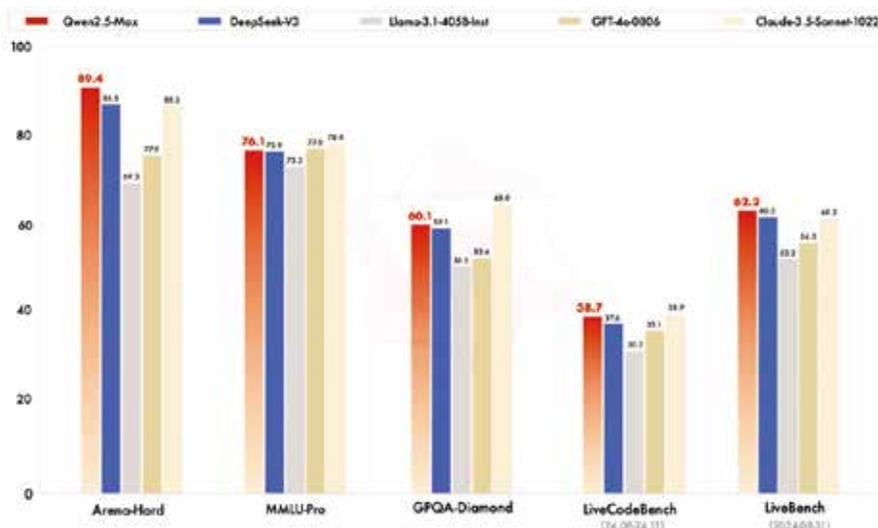
## # 시작하면서

얼마 전부터 뉴스에서 딥시크(Deepseek)라는 중국의 생성형 AI가 큰 화제가 되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기업인 '스타게이트(Stargate LLC)' 프로젝트를 공개하면서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그날, 중국에서 발표된 Deepseek는 CES로 기세 등등하던 NVIDIA의 주가마저 발표 당일 17%나 폭락시키는 등 미국을 'AI 스푸트니크 쇼크'에 빠뜨리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완전 오픈소스를 주장하면서도 투자비가 ChatGPT 등 기존 생성형 AI의 5% 수준에 불과하고, 성능이 ChatGPT를 능가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고도 연산자원의 기반 하에서만 AI 역량확보가 가능하다고 믿은 기존의 학계나 업계 통설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림 1. Deepseek R1의 벤치마크 성능, Deepseek 제공)

그러나 충격은 그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알리바바는 음력 설날 그림이었던 1월 28일, 자사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큐원(Qwen) 2.5를 발표하고 자사 서비스가 Deepseek V3<sup>2</sup>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발표하는데 이어 중국의 명절 특집 프로그램인 CCTV 춘절연합만화(春节联欢晚会)<sup>3</sup>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수십 대가 출연해 무용수들과 갈라쇼 공연을 펼치며 화려한 군무를 뽐내 중국의 로봇 관련 기술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림 2. Qwen 2.5 벤치마크 성능, Qwen 제공)



(그림 3. CCTV 춘절연환만화 중 갈라쇼 장면 갈무리. YTN 재인용)

음력 설을 쇠는 한국,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게는 설 연휴의 빅 이벤트였겠지만 사실 미국, 유럽과 일본 등에게는 트럼프 취임을 전후한 중국의 빅 이벤트로 해석하는 것이 좀더 맞아 보인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오롯이 미국, 특히 트럼프 정부에게 '대중 경제제재가 계속되어도 중국에는 실질적인 손해가 없으며, 중국은 중국의 독자적 기술로 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인을 주고 있다<sup>4</sup>. 미국도 이를 직시해서인지 상무장관 후보 하워드 러트닉이 직접 'Deepseek은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언론 브리핑에 나서고, 불과 80억원 정도의 투자로 Deepseek V3를 개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I 반도체 수출통제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AI 기술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민간 기업을 통해 국가적 기술역량을 공개하고 로봇 기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과시하는 이면에는 트럼프 정부를 겨냥한 공세 외에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물적 인프라가 현재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점이 크다.

### # 중국의 AI 기술역량

지난 호<sup>5</sup>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중국은 대학 연구소와 기업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생성형 AI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했고, 중국 정부도 디지털 5법<sup>6</sup>을 통해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통제, 관리, 육성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준비를 마친 상태다. 특히 대기업인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의 경우 개인 서비스보다는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기능을 개발하고 있고, 오히려 바이촨(Baichuan), 지푸(Zhipu), 키미(Kimi) 등 스타트업 서비스가 개인 소비자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내놓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중국은 이미 NVIDIA가 사실상 독점한 하드웨어(GPU) 영역 외에는 적어도 생성형 AI의 개발과 대중화를 위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Covid 이후 APP가 대중화되면서 공공기관과 민간에 있는 개발인력 자원도 무궁무진하다. 지난 여름 중국에서 개봉되었고, 최근 국내에도 소개되었던 중국 영화 '역행인생(逆行人生)'에서 소개된 것처럼 개발자들의 근무조건도 996<sup>7</sup>이라는 별명 이상으로 가혹한 편이지만 경기에 따라 정리해고가 수시로 가능하여 지금까지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중국 시장에서라면 AI 개발인력 조달은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림 4. 영화 '역행인생' 중 APP 개발자 관련 장면 모음. '역행인생' 갈무리본)

이런 대규모의 인력 조달은 1978년 이후 추진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수많은 인력들이 해외, 특히 미국 유학을 통해서 선진 학문을 중국에 재이식했고, 전자공학과 컴퓨팅 등의 분야에서 탄생한 수많은 학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가 후학을 육성하면서 중국 학계 전체가 레벨업되면서 가능해졌다. 또한 IBM, 애플 등 선진 기업에서 근무하던 많은 엔지니어와 개발자들이 고국의 발전에 따라 중국으로 돌아온 것도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국내 학계 역시 1950년대 이후 본격화된 미국, 영국, 서독 유학을 통해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고 이들이 학계에서 근무하면서 국내 학계의 기반이 넓어졌고, 미국에서 근무하던 엔지니어들이 국내로 돌아와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이나 정부 출연기관, 공기업 등에 흡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 하에서 반도체는 1980년대 말부터, 초고속통신망을 필두로 한 인터넷 인프라와 다양한 정보통신 역량이 1990년대 말부터 성장했던 사례만 보더라도, 중국 역시 한 세대가 넘는 유학생 학자, 전문가 집단과 그들에 의해 육성된 차세대 인력을 통해 충분한 내부 성장 기반을 갖출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중국의 제조경쟁력이다. 국내 기업은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을 전후해 중국 진출이 시작되었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중국에 진출했고 거의 전 세계의 주요한 업체들이 중국에 생산시설을 갖추면서 학습한 생산, 제조관련 노하우는 이제 중국이 제조설비, 공작기계, 로봇 등은 물론 제조효율화 및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까지 확실한 비교우위를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최근 리쇼어링(reshoring) 바람에 따라 많은 업체가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이 확보한 이런 제조경쟁력 기반 하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고정밀도 작업로봇을 기업에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중국을 따라갈 나라가 아직은 없다.

여기에 정부 지원도 큰 몫을 했다.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기술자립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다양한 산업에 대해 기술자립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면제 및 절감, 정부 자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들은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쟁사들을 제치고 중국 내에서 시장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면서 중국을 떠나는 외국 기업이 늘어나게 된 것도 결국 이런 중국 정부의 장기적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 근거가 된다.

## # 중국 AI와 IT 산업의 미래는 여전히 장밋빛인가?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가시적 성과, 그리고 지금 생성형 AI에서 보여 주는 성과들이 앞으로도 무한히 계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필자도 즉답이 어렵다. 이는 중국의 사회체제에 따른 한계와 중국을 둘러싼 글로벌 시장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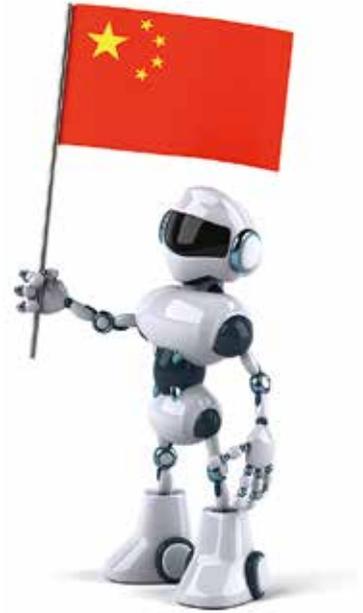
우선, 앞에서 언급한 중국의 디지털 5법의 존재다. 생성형 AI 관리 체계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에 대한 잠정 조치법> (2023.07.10 발효) 3조<sup>8</sup>와 4조 1항<sup>9</sup>을 통해 중국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역시 중국 법률과 하위 행정법규에 근거해 통제를 제도화하고,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그 어떤 정보도 생성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이 영향으로 중국의 거의 모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가입 시 국내 휴대폰의 실명인증 절차를 통해 계정을 생성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 시의 모든 데이터와 사용자의 쿠키 등 개인정보 역시 해당 법과 연계법률인 <네트워크 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 안전법> 등에 의해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도록 되어 있다.

사실 데이터 5법 중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 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서 착안한 것이긴 하지만, <네트워크 안전법>이나 <데이터 안전법>이라는 연계법을 근거로 중국의 사회체제 특성 상 정부가 시스템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개인정보를 '중국 경내<sup>10</sup>의 서버에 두도록 강제'함으로써 데이터의 통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탈리아를 필두로 우리 정부도 Deepseek에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방식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역시 이러한 중국의 법적 규제요소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언론에서 밝힌 것처럼 Deepseek 혹은 Qwen에서 중국에 불리한 내용 혹은 중국 정부에게 곤혹스런 이슈를 검색했을 때 '통제된 답변'<sup>11</sup>이 나오는 것 역시도 결국은 중국의 법률에 의거한 서비스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 하나의 문제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선택지에 대한 문제다. 사실 소비자란 매우 양가적 성향(ambivalence)을 가지고 있는 존재여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상품을 선택하지만, 동시에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sup>12</sup>. 이런 양가적 성향은 AI 혹은 IT 산업 관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유럽인들이 google의 독점에 반대하면서도 중국의 서비스에 거부감을 갖는다거나, 미국인들 역시 tictoc과 같은 서비스에 환호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tictoc을 규제함에 따라 유사한 미국 서비스로 옮겨가는 등의 행동은 정부 규제 이전에 소비자들의 양가성이 먼저 작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사실 Tictoc의 경우는 중국 서비스라는 점이 강조되지 않은 채 솜뿔이 파급력을 일으키면서 세계적 유행 후 각 정부의 규제가 뒤따른 케이스라 다를 수는 있지만, 출신이 명확한 Deepseek나 Qwen 같은 중국발 AI 서비스가 '무료'라는 점을 들어 전 세계 소비자들을 유혹할 때, 과연 이들의 서비스를 대중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Tic toc과는 분명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결국 이런 소비자 경험 측면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이라는 국가와 그 국가에서 나오는 IT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 묵과하기 어려운 점은, 시장 규모가 작은 대한민국에서는 상용화되기 어려운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중국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매 하면서 동시에 해외로 시장을 확대하는 형태이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판로 확보가 가능하고, IT 제품의 경우 테무, 쉬인, 알리 등을 통해 저가로 판매하여 가성비를 노리는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방식이라 주머니를 열기도 비교적 쉬운 측면 또한 그것이다.



AI 서비스 역시도 이미 Deepseek가 '무료'를 선언한 이상 뒤이은 Qwen 등도 유료 서비스로 출시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기존의 유료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소비자들은 충분히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다.

무엇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산업적 측면에서 중간재, 제조설비 등의 분야에서 압도적 위상을 갖게 된 중국의 특성 상, 중국산 제품 혹은 설비를 통하지 않고 제조될 수 있는 제품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은 향후 중국 IT 산업의 미래 측면에서 고민할 문제다. 당장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인 라이더(LIDAR/LiDAR)<sup>13</sup>만 해도 중국 허사이(Hesai Technology)가 억대의 제품 가격을 백만원 대 수준으로 낮추면서 전 세계 시장점유율 47%<sup>14</sup>를 점유할 정도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지닌 것이 중국 제조업의 기술력이다. 적어도 현재 중국을 제외하면 이런 원가관리 능력을 갖춘 제조 사나 제조국가는 전 세계에 전무하기도 하다.

시스템 측면으로도 Covid 시기와 중국의 사회체제적 특성을 활용하여 사실상 중국 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면 정보를 database화하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충분한 fieldtest에 기반하여 L4 이상의 차량을 상용화 추진하는 것이 중국이다 보니, 테슬라조차도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FSD<sup>15</sup> 테스트와 출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AI 서비스든, IT 산업이든, 미국이나 중국 그 어느쪽도 절대적인 우위를 쥐고 있지 못하지만 각각의 강점이 있기에, 결국은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셈이다.

게다가 Deepseek R1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들의 개발모델을 오픈소스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 세계 AI 시장을 주도하던 Open AI를 포함해 거의 대부분의 업체는 각 사의 개발모델을 극비로 하고, 수많은 전문 개발자들을 영입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토록 해 왔는데, Deepseek가 개발모델을 공개함에 따라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Deepseek의 API를 활용해 초기 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전 세계에 있는 은둔고수 개발자들이 포함된 다양한 폐쇄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시스템적 혁신도 가능하고, 개발회사별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 최적화가 가능해, 궁극적으로 기존의 폐쇄적 개발 방식을 유지하던 Open AI의 ChatGPT와 같은 서비스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불과 며칠 만에 Microsoft에서 자사의 Azure AI Foundry와 GitHub에 Deepseek R1 모델을 추가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증하는 조심스럽지만 명확한 사례가 될 것이다.

## # 마무리하면서

사실, Deepseek와 Qwen을 통해 중국이 자국의 생성형 AI 기술을 공개하면서,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양강의 AI 개발국가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현재 미국은 GPU 등 하드웨어 수출 통제와 컴퓨팅 파워라는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중국과 기타 세계를 견제해왔는데, 중국이 내놓은 Deepseek의 오픈소스를 활용해 전 세계가 AI 개발에 동참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려던 생성형 AI의 독점적 지위는 사실상 흔들리게 되었다. 또한, '장비빨'로 대표되는 대규모 연산자원의 확보 외에 적은 비용으로도 강화학습 기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Deepseek와 다양한 오픈소스에 전 세계가 생성형 AI 개발에 동참할 경우 그러잖아도 풍부한 중국 내 개발인력까지 합쳐져 중국의 AI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게 이 모든 상황이 100%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중국이라는 사회 구조 상, 결국 모든 서비스를 중국 법에 따라 중국 영토 내에 묶는, 사실상의 '서비스 국내화'를 유도하고 있는데, 미국의 tictoc 규제와 함께 Deepseek에 대해서도 여러 나라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Deepseek를 포함한 중국의 서비스가 '중국산 서비스'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중국 법률규제에 따라 '갈라파고스화된 중국산 서비스'로 낙후될 가능성이 여전히 농후하기 때문이다.



## # 마무리하면서

많은 이들이 작금의 국내적 정치상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이 약화되는 점에 대해 통탄하고 있음을 필자도 잘 알고, 필자 역시도 이 부분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다. 솔직히, 여러 사람들의 지적 대로, Covid를 전후한 AI 맹아기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한 채 국내 IT Bigtech가 AI에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이제는 많은 서비스들처럼 ChatGPT, Claude, Perplexity 등에 사실상 종속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니, 박종훈 기자의 표현처럼 “AI 투자조차 제대로 못한 우리 입장에서 ‘한국의 AI 패배주의’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sup>16</sup>라는 일갈을 들어도 시원찮은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하지만 Deepseek가 보여준 성과는 적어도 AI 개발에 있어 ‘장비’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이는 대한민국의 DNA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Deepseek R1이라는 오픈소스가 나타난 이상, 이 모델을 활용해 대한민국 스타일의 생성형 AI 대전략을 준비한다면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에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 동안 식민지와 전쟁으로 산업기반이 전무한 가운데서도, 중국의 수많은 인재들이 성공하지 못한 자동차 엔진의 독자 설계 및 개발, 나아가 프로토타입이었던 일본 엔진에서 기술적으로 독립하는 데 성공했고,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도 DRAM을 시작으로 HBM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면서 우리 나라 기술력의 힘을 입증해왔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인터넷 정부의 구축이라는 전 세계적인 성과 역시도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낸 결과였음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충분히 기회는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가진 높은 사회적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역량 역시 AI나 IT 산업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다. Deepseek가 보여준 선별적 강화학습은 중국 정부가 원하는 ‘중국 법에 맞는 생성형 AI 서비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글로벌 소비자 관점에서는 중국에 의해 걸러지는 ‘중국산 AI’ 보다는 통제되지 않는 환경에서 만들어진 ‘글로벌 서비스’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홍콩 우산혁명 이후 많은 글로벌 언론사의 아시아 본부가 대한민국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나, K-pop을 필두로 한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게 된 것도, 결국 높은 사회적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제받지 않는 콘텐츠’라는 점이기에 때문이니 말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뉴스에 대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더 냉정하게 우리나라의 생성형 AI와 IT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반중, 혐중 정서의 강화로 중국에 대한 혐오 일변인 경우가 많지만, 중국은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우리를 산업적으로 추격하며 과거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던 경쟁력을 하나하나 따라잡고자 한다. 시류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경쟁자인 중국의 서비스나 산업을 이해하고 우리 나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에서 차곡차곡 노후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의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끝.



Source

강창규, 『트럼프 'AI 패권'에 정면 도전..."딥시크 해킹 100배↑』, YTN, 2025.01.31. 22:56  
<https://youtu.be/zriD5aEQalw?si=p-G3ITr7iNZKS8Tf>

문형남, 『[기고] 중국산 생성형 AI 'deepseek'에 이어 알리바바 클라우드 'Qwen', 전세계 더블 강타』, SDG뉴스, 2025.01.31. 16:31  
<https://www.sd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385>

박종훈, 『중국발 딥시크 충격에 한국이 더 큰일난 이유』, 박종훈의 지식한방, 2025.01.31  
<https://youtu.be/neZRKdIXtac?si=Klk1U5506Qw9onvL>

Daya Guo 외, 『DeepSeek-R1: Incentivizing Reasoning Capability in LLMs via Reinforcement Learning』, Deepseek, 2025.01.20.  
[https://raw.githubusercontent.com/deepseek-ai/DeepSeek-R1/e06298d956cd92b952afd9a18c824cd9e5f69f3b/DeepSeek\\_R1.pdf](https://raw.githubusercontent.com/deepseek-ai/DeepSeek-R1/e06298d956cd92b952afd9a18c824cd9e5f69f3b/DeepSeek_R1.pdf)

Gang Ding, 『DeepSeek的“科技奇袭”说明了什么?』, 환구시보. 중국망 재인용. 2025.01.27. 09:14  
[http://www.china.com.cn/txt/2025-01/27/content\\_117687926.shtml](http://www.china.com.cn/txt/2025-01/27/content_117687926.shtml)

Qwen, 『Qwen2.5-Max: Exploring the Intelligence of Large-scale MoE Model』, Qwen, 2025.01.28  
<https://qwenlm.github.io/blog/qwen2.5-max/>

- 
1. 보도자료와 논문, 언론 보도 등에 따른 현재까지의 상황이며, 일부 사용자는 이 주장이 왜곡된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Anthropic사에서는 모든 업체의 훈련비용이 초기 대비 크게 감소하고 있어, 추론비용의 산정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 원고 작성시점 (2/1) 현재 투자비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어려우므로 업체와 언론의 보도내용에 준해 기술한다.
  2. 이번에 발표된 Deepseek는 R1 버전이고 V3는 작년 12월 26일에 공개되었다. Qwen은 직전 공개버전인 V3 대비 성능이 월등하다는 것을 발표했으므로 따라서 Deepseek R1과 Qwen 2.5와의 성능 차이는 아직 공식적으로 비교검증된 것은 없는 셈이다.
  3. 우리말로는 '설날맞이 나이트 쇼' 정도로 풀이된다. 보통 설날 그믐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정도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설날 그믐 밤만큼은 날을 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중국의 전통적인 풍습에 맞게 등장한 프로그램으로, 설날 카운트다운이 포함되어 있다.
  4. 실제 DeepSeek CEO 량원펑(梁文鋒)은 중국 저장성의 저장대학을 졸업한 유학경험이 없는 인물로, 그와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개발자들도 대부분 유학파가 아닌 순수 국내파 인력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5. 자세한 내용은 '중국의 생성형 AI 대전략 - Baidu AI 엿보기' 참조.
  6. 네트워크 안전법, 데이터 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세 가지 법률을 흔히 중국 디지털 3법이라 부르며, 여기에 과학 기술 진흥법,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 조치법 등을 합쳐 중국 디지털 5법 체계가 완성되었다.
  7. 오전 9시 출근, 9시 퇴근, 주 6일 근무. 초과근무에 대한 일상적인 통칭이고, 이보다 더 심한 근무형태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 국가는 발전과 안전을 동등하게 중시하고, 혁신과 법적 거버넌스를 결합하는 원칙을 준수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혁신과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중한 분류 및 체계적 감독을 시행한다.
  9.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견지하고, 국가정권 전복 선동, 사회주의제도 전복, 국가안전과 이익위해, 국가이미지 훼손, 국가분열 선동, 국가통일 및 사회안정 파괴, 테러리즘, 극단주의 선양, 민족혐오 선양, 민족차별, 폭력, 외설색정 및 허위유해정보 등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생성해서는 안 된다.
  10. '영토 내라는 의미의 중국식 표현. 직역하면 '국경 내, 국가권력이 적용 가능한 지역 내'의 의미다.
  11. 최근 논란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혹은 국회 질의 시 답변대상이 된 군인들이 '답변이 제한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군 기밀 등의 문제로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를 생성형 시의 답변 역시 이와 비슷한 형태의 '통제된 답변'이 반복된다.
  12. 대항마트에서 초특가 제품을 찾다가도 어느 측면에서는 '지구를 위한' 소비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흔히 마케팅 관련 수업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사례는 소비자들의 양가성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며 실제 이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라는 학문도 등장했으니 말이다.
  13. LIDAR는 Laser Imaging, Detection And Ranging으로, LiDAR는 Light Detection And Ranging으로 번역된다.
  14. 2022년 기준
  15. Full Self Driving. 완전 자율주행차. L5 수준
  16. 박종훈, "중국발 딥시크 충격에 한국이 더 큰일난 이유"  
(<https://youtu.be/neZRKdIXtac?si=vN3XZmFc6zr62og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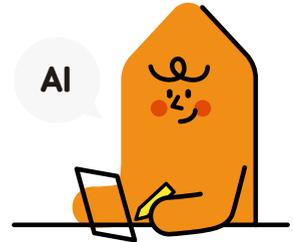
# 쓰기의 자동화 시대, 우리의 읽기-쓰기에 대하여

writer. 김종훈 (417)



리포트를 제출할 때마다 찝찝하다. 시가 작업한 결과물을 가져다 쓸 때 느끼는 기분이다. 얼마나 손을 보았는가에 따라 찝찝함의 정도는 다르다. 회가 거듭할수록 처음보다 무감각해지는 것을 보면 별 다른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교수님들도 이런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을 듯 하다. 아무리 시가 쓴 결과물을 100% 판별하는 것이 어렵다 해도 대부분의 제출물이 유사하고, 시 특유의 문장을 알아채지 못할 리 없다. 그럼에도 특별히 가이드나 제약 사항이 없는 걸 보면, 포기를 했거나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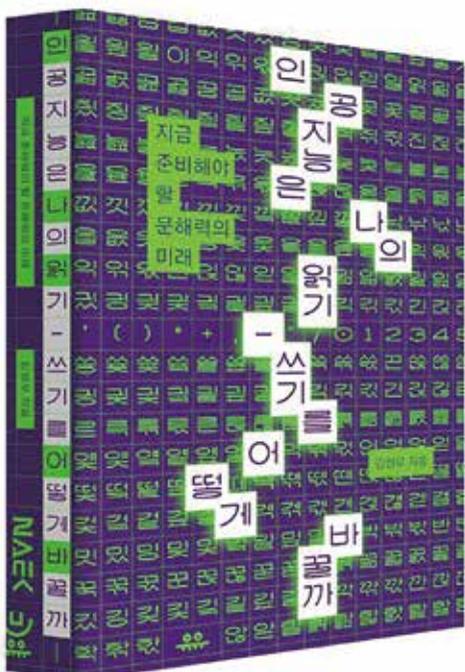
차라리 시 사용을 금지하거나, 또는 허용하더라도 특정 부분은 개인의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라는 가이드가 있다면 찝찝함은 좀 나아질까? 문제는 이렇게 어중간한 상황이 교수학습과 평가에 가장 민감한 학교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로 돌려서 제출해도 좋은 평가를 받는 데 문제없다고 하면, 과목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들은 무엇으로 평가되는 것일까? 성찰하는 과정을 시로 내어주면 사람은 오히려 도태되는게 아닐까? 성장과 자극이 한참 필요한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끝없는 회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렇다. 쓰기의 자동화가 불러온 문제는 비단 리포트 제출하기의 윤리성이나 평가의 정당성에 한하지 않는다. 쓰기의 자동화는 사람의 쓰기에서 비롯되는 여러 과정을 압축한다. 정보를 습득하고 정리하고 사유하고 비로소 쓰기를 시작하더라도, 초안을 수정하고 보충하고 조정하며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단숨에 건너뛴다. 『인공지능은 나의 읽기-쓰기를 어떻게 바꿀까』는 딱 그런 어중간한 찝찝함과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들 사이에서 찾아본 책이다.

『인공지능은 나의 읽기-쓰기를 어떻게 바꿀까』는 응용언어학자인 저자가 AI의 도래와 함께 변화될 인간의 읽기-쓰기에 대한 미래와 방향성을 제시한 책이다. 사람처럼 읽고 쓰는 인공지능이 내포한 다양한 질문과 논의들을 평가하고, 인간과 인공지능의 읽기-쓰기 과정을 심도있게 비교 분석한다. 그동안의 논의가 인공지능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잘 활용할까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읽고 쓰는 관계에서 인공지능은 단순히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주체이자 구성원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과 지혜롭게 공존해야만 우리의 글쓰기 능력을 퇴화시키지 않고 확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읽기-쓰기에서 인공지능과의 공존 관계를 제안하는 저자의 논리는 기술에 대한 비판적 접근법에 기반한다. 기술에 대한 결정론적 관점이 기술의 특징과 기능, 영향력, 기술 자체가 만드는 변화에 주목한다면, 도구적 관점은 기술 사용자의 의도, 목적, 역량에 무게를 두면서 '슬기로운 기술 활용'을 제안한다. 비판적 접근법은 기술의 도입이 만들어 내는 사회 문화적 변화의 힘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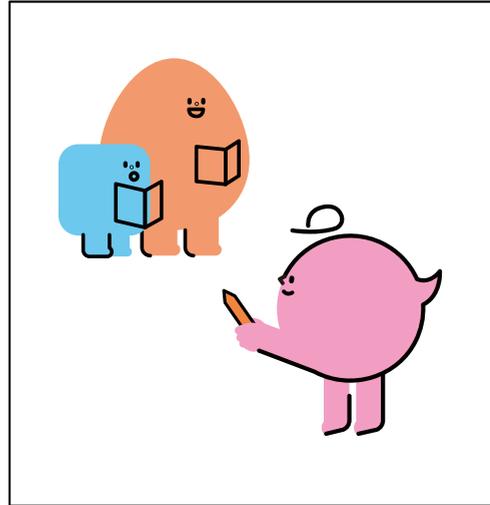
저자는 인간과 인공지능, 인간과 기술이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읽기와 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본다. 우리가 연필로 쓸 때와 워드프로세서를 쓸 때 전혀 다른 근육과 자세를 필요로 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과 속도가 달라지듯이, 읽기-쓰기는 기술과 엮여 변화한다. 기술이 바뀌면 감각, 운동, 생각, 느낌, 자세가 모두 달라진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쓰기 도구의 생태계가 변화하면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바꾸고, 결국 쓰기를 통해 의미를 만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읽기-쓰기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저자가 제안한 방법 중에 강의실에서도 활용 가능한 ‘모두와 함께 읽고 함께 쓰기’와 ‘다른 사람의 입장과 관점을 취하기’를 소개한다.

### # 모두와 함께 읽고 함께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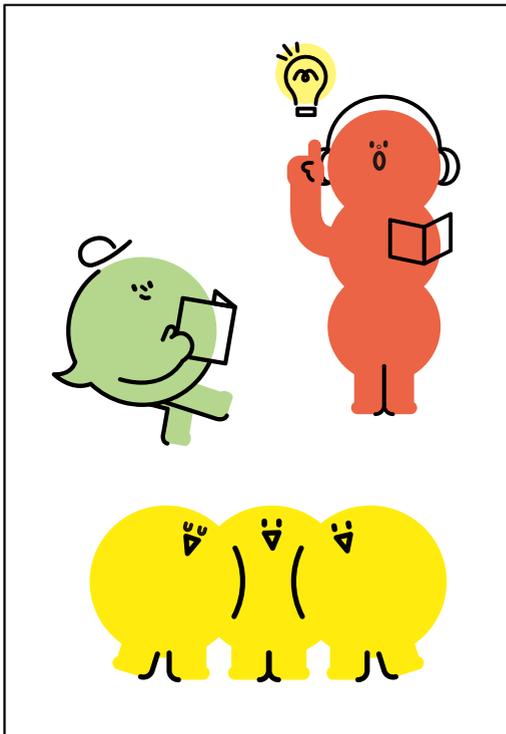
읽기-쓰기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인공지능과의 공존 관계 하에서는 모두 함께 읽고 함께 쓰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10명으로 구성된 조가 토론을 하고 에세이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하자. 토론 주제는 단순히 사실 관계를 밝히기 보다 다양한 견해가 있어 개인의 경험과 관점이 중요한 주제라고 하자.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한 편의 에세이로 정리하려면 지금까지는 어느 한명의 절대적인 희생(!)이 필요했으리라. 그러나 생성형 인공 지능을 활용하면 자원 개인의 의견을 적절히 분류하고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물론 단일 필자의 글보다 덜 논리적이고 덜 자연스러울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점검하고 비판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 # 다른 사람의 입장과 관점을 취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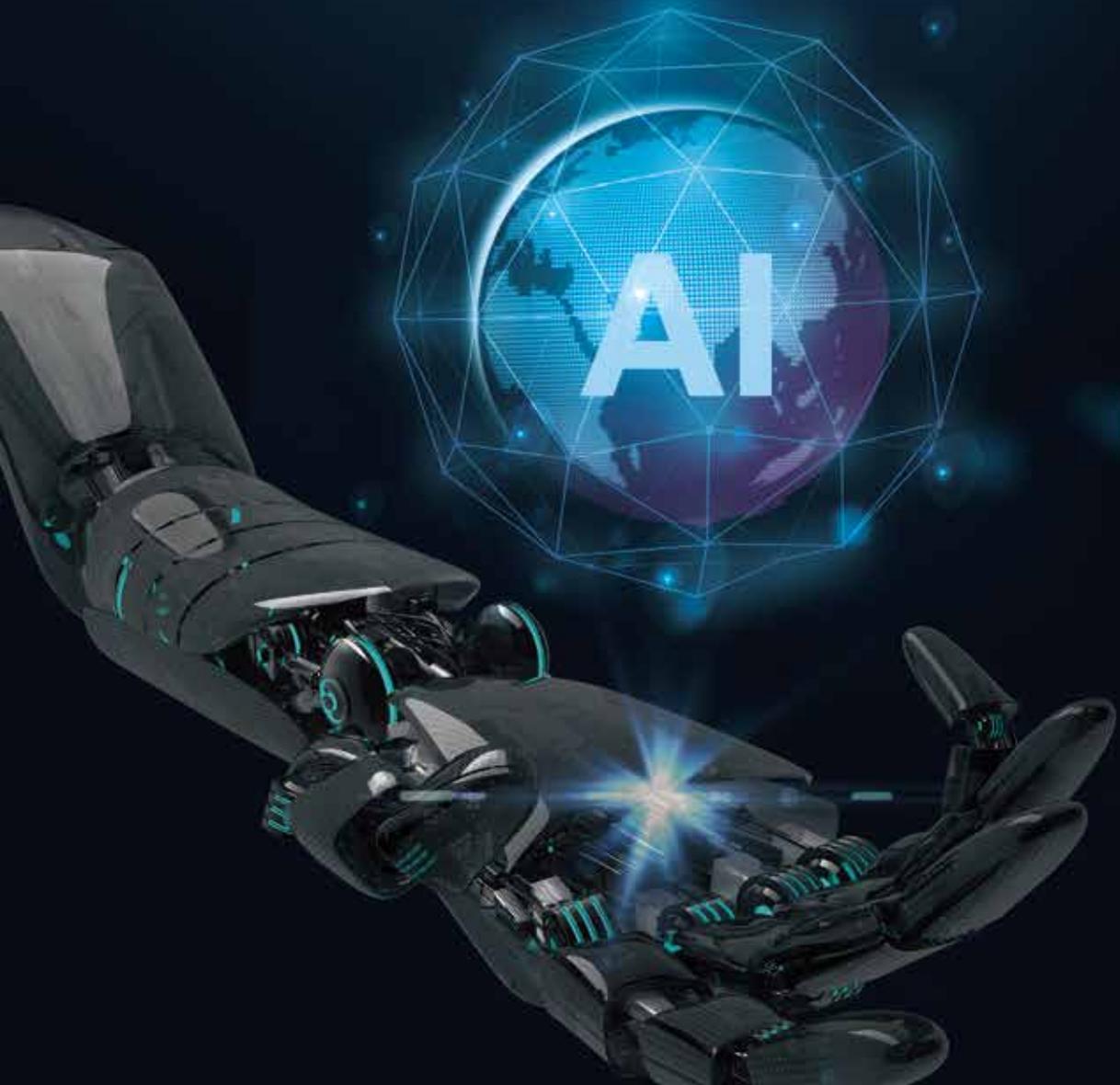
인공지능은 비판적 글쓰기에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다. 역사 서술의 경우 왕조 중심으로 서술하느냐, 민중의 입장에서 서술하느냐를 함께 보면 입체적으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게 한 쪽편의 입장과 추가적인 맥락을 제공하면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는 비판적인 견해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낙관주의를 피력하는 선언문을 기술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입장에서 논박하는 글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경영 전략] 수업 중 유니레버의 글로벌 경영 전략을 다루면서 CEO와 로컬 실무자의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해 본 적이 있다. 전사 전략이 실무 레벨까지 정렬하기를 바라지만 실무 부서끼리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또한 익히 알려진 기업의 성공 전략이 마치 초능력자처럼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CEO 중심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자나 노동자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렇듯 인공 지능을 조력자로 활용한다면 아무런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비판적인 읽기와 쓰기 가능하리라 본다.



이 밖에도 저자는 멀티리터러시라는 개념으로 이미지, 오디오, 영상 등이 역동적으로 결합한 형태가 인공지능과의 공존이 당연한 미래 세대의 읽기-쓰기 방식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읽기-쓰기를 인공지능에게 내어주면서 인류의 퇴화(!)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 기술주권 시대를 준비하라, '소버린 AI'

writer. 김태형 (4271)



## 소버린 AI란 무엇인가?

오늘날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소버린 AI(Sovereign AI)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으며, 소버린 AI는 외부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독립적이고 안전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각 나라 그리고 기업의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각국이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버린 AI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AI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의존도가 심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오늘날 국가와 기업은 독립적인 AI 개발 및 활용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표1. 알려진 주요 AI 외, 각 국의 다양한 소버린 AI 현황

국가	AI 모델명	특징
프랑스	Mistral AI	7B, 8×7B 등 다양한 규모의 오픈소스 LLM 출시
독일	LEO	독일 LAION과 Aleph Alpha가 개발
이탈리아	ITALIA-1	이탈리아 정부 주도로 개발
UAE	Falcon	UAE 정부 주도로 개발
인도	Hanooman	인도 정부 지원으로 개발

## 소버린 AI의 전략적 가치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현재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강대국들은 AI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자국의 AI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AI 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

AI 시스템의 성능은 양질의 데이터 확보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관리와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AI 생태계 발전의 토대가 되며, 더 나아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와 산업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버린 AI의 발전은 단순히 기술적 독립성을 넘어, 국가의 디지털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각국은 자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소버린 AI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소버린 AI : 글로벌 동향과 각국의 전략적 접근

글로벌 AI 시장에서 각국은 자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소버린 AI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국가들의 차별화된 접근 방식은 향후 글로벌 AI 생태계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 : 규제 중심 접근

EU는 GDPR을 시작으로 최근 AI Act 제정까지, 법제도적 프레임워크를 통한 AI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해볼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주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
-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통한 책임있는 AI 개발 촉진
- Mistral AI 등 유럽 자체 AI 기업 육성을 통한 기술 독립성 확보

### 미국 : 민간 주도 혁신

미국은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AI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OpenAI, Anthropic 등 독립 연구기관의 혁신적 성과
- 정부-민간 협력을 통한 AI 안전성 연구 지원
- 글로벌 AI 표준 수립에서의 주도권 확보

### 중국 : 국가 주도 발전

중국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AI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AI 성능을 앞서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을 정도로 놀라운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바이두(Ernie Bot), 알리바바(Qwen), 텐센트(Hunyuan) 등 자국 AI 모델 개발
- AI 윤리 지침과 알고리즘 규제 도입
-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한 글로벌 영향력 확대

### 한국 : 균형적 접근

한국은 정부 주도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한 독특한 발전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 표2. 한국의 정부와 민간기업의 결합 발전모델

주 체	주요전략	성 과
정부	K-Cloud 구축 AI 연구개발 지원	국가 데이터 인프라 확보 AI 전문인력 양성
네이버	HyperCLOVA개발 초거대 AI 연구	한국어 특화 AI 모델 글로벌 경쟁력 확보
카카오	KoGPT 개발 AI 서비스 확대	생활밀착형 AI 서비스 사용자 경험 혁신

## 소버린 AI 구현의 도전 과제들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소버린 AI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국제 협력의 균형 확보는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우선 AI 기술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많은 국가와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구축, 고급 인력 확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발도상국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협력과 기술 독립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글로벌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는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자국의 기술과 데이터를 보호해야 하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특히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개인정보 보호, 기술 이전 등의 문제는 국가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과제이므로, 소버린 AI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 외, 최근에는 AI 모델의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 윤리적 가이드라인 수립, 친환경 AI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도전 과제들도 등장하고 있고, 특히 AI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기업과 개인의 준비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글로벌 AI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과 개인이 소버린 AI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기업의 태도와 전략**

기업의 경우, 무엇보다 장기적 투자 관점의 접근이 중요합니다. AI 기술과 인프라 구축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자체 데이터 관리 인프라 구축과 독자적인 AI 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중심 전략의 수립도 핵심 과제입니다. 기업은 데이터의 수집부터 활용, 보호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성과 함께 윤리적 판단력을 갖춘 인재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AI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률, 윤리,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 **개인의 태도와 전략**

개인의 경우에도 지난 아이스티3호에서 기고한 <AI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AI 기술의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중요성, AI 윤리 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관리 능력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버린 AI 시대에 대한 준비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기업은 장기적 관점의 투자와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개인은 지속적인 학습과 인식 제고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와 노력이 모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표3. 소버린 AI를 위한 기업과 개인의 대응 전략 핵심 포인트 정리

기업의 핵심 준비사항	개인의 대응 방향
장기적 투자 계획 수립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전문인력 확보 윤리적 AI 개발 원칙 정립	AI 리터러시 향상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리 지속적인 역량 개발 비판적 사고력 함양

### 맺으며 : 미래를 위한 제언

결국 정리해보자면, 소버린 AI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닐 것 입니다.

이는 국가의 주권, 경제적 자율성, 기업 경쟁력, 그리고 개인의 데이터 권리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정책적·사회적 이슈이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는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요구됩니다. 또한 기업은 AI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하며, 개인 또한 AI 활용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글로벌 경영과 기술 혁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경영과 기술이 융합되는 현대 산업 환경에서, AI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실질적인 경영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리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금,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경제 및 사회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미래 경영자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나아가, 향후 10년간 AI와 관련된 정책, 기술,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이 현재의 논의와 준비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오늘날의 선택이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과 산업 지형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AI 기술의 발전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경영자와 각 사회에서의 중심이 되는 우리 모두는 소버린 AI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비즈니스와 정책에 전략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버린 AI는 개별 기업이나 특정 국가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와 기술 주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통찰, 윤리적 고려, 글로벌 협력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집될 때, 미래 AI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멋진 구성원들이 될 것임을 제언하며 이만 기고문을 마칩니다.

끝.

# 자카르타, *Jakarta* 문화와 전통이 공존하는 특별한 여행

writer. 김준형 (43기)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네시아 칠레곤에서 40일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칠레곤은 한국의 여러 대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의 70-80년대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인구가 대부분인 국가로, 신분중에 종교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히잡을 포함한 전통적인 무슬림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인도네시아의 깊은 종교적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빡빡한 프로젝트 일정 중에 현지 공휴일이 있어,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를 당일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호출 앱인 Grab을 이용해 편리하게 차량을 예약하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칠레곤에서 자카르타로 가는 길은 인도네시아의 시골 풍경과 도시로 다가갈수록 보이는 개발된 모습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 자 카 르 타 는,



## 1. 국가기념탑 (모나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상징적인 국가기념탑, 현지에서는 모나스(Monas)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황금빛 불꽃으로 장식된 웅장한 오벨리스크는 인도네시아의 독립 투쟁을 상징합니다. 재미있게도 인도네시아의 독립기념일은 8월 17일로, 한국의 광복절(8월 15일)과 비슷한 시기에 있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당시 인도네시아는 우기였지만, 놀랍게도 이날은 맑은 날씨가 지속되었습니다. 우기는 자주 비가 내리고 습한 날씨로 인해 여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제가 방문한 날은 하늘이 맑아 운이 좋았다고 느껴졌습니다. 기념탑 주변의 넓은 광장에는 쾌적한 날씨를 즐기는 현지인과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탑과 자카르타의 스카이라인이 어우러진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 2. 자카르타 대성당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자카르타 대성당이었습니다. 신고딕 양식의 건축물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높은 첨탑의 섬세한 디테일과 내부의 고요한 분위기는 조용히 사색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1901년에 설립된 자카르타 대성당은 당시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가톨릭 신자들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성당은 다종교 공존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자카르타가 가진 다문화적 특성과 종교적 관용의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이 대성당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중요한 영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이스티크랄 모스크와 함께 종교 간 화합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인 대성당은 자카르타의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 3. 이스티크랄 모스크

대성당 바로 건너편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모스크인 이스티크랄 모스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종교적 랜드마크가 나란히 있는 모습은 다양성 속의 조화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대로변을 중심에 두고, 한쪽에는 무슬림 복장을 한 이들이 모스크로 향하고 다른 한쪽에는 성당에 다니는 무슬림 복장이 아닌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자카르타가 가진 다종교 공존과 문화적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모스크를 방문하며 느낀 문화적 차이 중 하나는 모스크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는 전통이었습니다. 발을 씻는 행위는 단순한 청결을 넘어서, 마음과 몸을 정화하여 신 앞에 겸손히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발을 씻는 전용 장소와 신발을 맡길 수 있는 구역이 잘 마련되어 있었으며, 이는 청결과 예의를 중요시하는 무슬림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모스크의 현대적이면서도 웅장한 디자인을 감상하며, 넓은 뜰을 오가는 방문객과 신도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 4. 현지 음식 시장

여행은 현지 음식을 맛보지 않고는 완성되지 않죠. 활기찬 거리 시장을 발견했는데, 수많은 음식 가판대들이 다양한 인도네시아 요리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나나 잎이 깔린 테이블에는 구운 사테 꼬치, 매운 삼발 요리, 다채로운 채소 등으로 가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음식은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향신료와 허브로 풍미를 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유혹적인 향기를 참을 수 없었고, 사테 아얌(닭고기 사테)과 텔루르 아신(소금에 절인 달걀)을 맛보았습니다. 종교적 전통을 반영한 음식은 그 자체로 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맛도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풍부한 맛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 끝마치며

자카르타에서의 짧은 여행은 역사, 문화, 그리고 생소한 문화적 경험이 어우러진 독특한 여정이었습니다. 모나스 같은 기념비적인 랜드마크에서부터 대성당과 모스크의 조화로운 공존, 대로변에서 보았던 서로 다른 종교와 복장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풍요로웠습니다. 특히, 무슬림 문화권에서 느낀 독특한 전통과 관습들은 인도네시아의 깊은 종교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지인의 따뜻한 환대와 인도네시아 요리의 특별한 맛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자카르타는 전통과 현대,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도시임이 틀림없습니다.



# 나의 첫 풀코스 마라톤 완주

writer. 이은홍 (39기)



내가 달리기를 만난 것은 2018년이다.

28년 동안 열심히 다닌 회사에서 더 이상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았다. 회사생활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마침 ROTC 동기들이 손을 내밀었다.“야, 뭐하나? 달리거나 같이 하자” 2018년 1월 5km도 뛰어보지 않은 초보는 2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ROTC 마라톤클럽”에 덜컥 가입했다. 달리기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이다.

그때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조금씩 달리기 시작했다. 2018년 3월 여의도에서 열린 10km 단축 마라톤, 5월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21.0975km 하프 마라톤을 처음으로 완주했다.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니 주변에서 “10월에 열리는 춘천마라톤이 춘천 의암호를 한바퀴 도는데 코스도 예쁘고 좋다”며 같이 가자고 한다. “이제 걸음마를 떼었을 뿐인데 42.195km 풀코스 마라톤을 달리자고?”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또 한번 일을 저질렀다. 일단 대회 접수부터 했다.

이제 물러설 수가 없다. 포기하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 해 여름 내내 달리고 또 달렸다. 기록 보다 거리를 늘려 25km도, 30km도 처음 달렸다. 연습도 부족하고 체력도 안 되는 것을 느꼈다. “할 수 있을까?” 몸은 가야 하는데 다리가 안 따라온다 “이래서 42.195km를 뛸 수 있을까?” 덜컥 겁이 났다. 그때 누군가가 “풀코스는 10km를 네 번 뛴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용기를 준다.“그래 10km는 뛰어봤으니 4번 나눠서 뛴다고 생각하고 뛰어보자” 마음을 다시 잡았다.

10월26일 대회 전날 춘천에 하루 먼저 가서 숙소를 잡고 출발지와 골인지점을 확인했다. 속으로는 잘해보자고 다짐 했지만 긴장 된다. 10월27일 일요일 9시 출발인데 아침부터 가을비가 내린다. “이런 우중련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는데 완주나 할 수 있을까?” 또 걱정이 앞선다. 1회용 우의도 보온비닐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다.



▲ 춘천마라톤 코스도

지나가던 자원봉사 학생이 본인이 지급받은 우의를 하나 내어준다. 정말 고마웠다. “학생, 고마워요, 복 받을 거예요” 하고 출발선에 섰다. 빗줄기가 더 굵어진다.“첫 풀코스 도전이 빗속에서 우중련 이라니” 긴장 속에서 출발 시간만 기다렸다. 드디어 “5,4,3,2,1. 출발” 고적대 밴드 소리 함성소리, 팽과리 소리 등이 뒤범벅 되어 힘차게 출발 선을 밟고 나갔다.

“기록은 모르겠고 안전하게 완주만 하자”고 생각하고 달렸다. 몸은 비에 젖어도 땀이 나니 열이 나기 시작한다. 5km를 지나고는 빗줄기도 가늘어져 우의를 벗고 달렸다.

먼저 달려본 분들은 “달리면서 보는 춘천 삼악산의 단풍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던데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흐르는 땀과 열기로 흐려진 안경을 닦으며 한발 한발 달렸다. 연습이 충분하지 않으니 속도를 낼 수가 없다. 혹시 오버페이스라도 하면 결승선 까지 어떻게 갈지도 막막했다.

다행히 비는 좀 그쳤다. 무사히 결승선에 들어가야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



▲ 춘천마라톤 흐린 하늘, 곧 비가 왔다

5km마다 급수대가 있고 10km마다 간식을 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뛰었다. 20km 지점에서 주는 초코파이를 두개나 먹었다. 하프 지점을 지나니 배가 고프다. 30km를 지나니 종아리에 쥐가 나기 시작한다. 빠르게 뛸 수가 없다. 쥐를 다스려가며 앞으로 나갔다. 비가 와도 많은 동회회원들과 시민들이 나와 응원해준다. 다시 비가 세차게 온다. 땀에 젖은데다 비까지 맞으니 몸이 떨린다.이젠 출다.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뛰었다. 소양교가 보이고 다리를 건너서 2km만 가면 된다는데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인다. 결승선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42.195km를 걷지는 않았다. 겁없는 초보는 비를 맞으며 간신히 첫 마라톤을 완주했다. 기록은 4시간45분26초. 완주했지만 기쁨도 잠시뿐이다. 물품보관소에서 가방을 찾아 옷을



▲ 첫 마라톤 완주 후 셀프 촬영

갈아 입었는데 출다. 배도 많이 고프다.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2시가 다 되어 가는데 먹은 것이 별로 없다. 주위를 둘러보니 회원들 응원 나온 "홍천마라톤 클럽" 천막이 있어 무작정 들어갔다. "폴코스를 뛰고 왔는데 배가 고프 왔습니다" 하니 동회회원분이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 주신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있다가 국밥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숙소로 돌아오니 정신이 좀 든다. 첫 완주를 도와준 분들이 생각났다. 우의를 준 학생과 춤고 배고플 때 도움을 주신 홍천마라톤 동회 회원분들, 주로에서 기운을 북돋아 주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 그분들이 있어 초보가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다. 10월 춘천 마라톤을 완주하고 11월3일 잠실에서 열린 JTBC 마라톤도 출전해 완주했다.

내친 김에 11월말에 양재천에서 열린 100km 울트라 마라톤까지 완주했다. 2018년에 두번의 폴코스와 첫 울트라 마라톤까지 완주한 것이다. 코로나로 대회가 없었던 2020~21년을 제외하고 지금도 매년 3회 이상 폴코스를 뛴다. 기록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어느새 폴코스 완주가 14번이다. 그래도 비 맞으면서 고생한 2018년 10월 춘천마라톤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 100km 울트라 마라톤 완주15시간50분

▼ 2018년 첫 폴코스와 첫 울트라 마라톤 완주



# MBTI보다 IMBA로 다양한 인생을 만나보세요!

writer. 이지선 (39기)



IMBA 환영회에 처음 나간 당신. 여기서 가장 적절한 행동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1.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며 자리에서 빠진다.
2. "제가 사실 IMBA 회장 지인 인데요?"라고 허세를 부린다.
3. 열린 자세로 새로운 인맥을 쌓을 기회를 만든다.
4. 무작위로 손을 잡고 "형님, 저 기억 안 나세요?"라고 한다.
5.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있다가 다 끝난 후 단체 사진만 찍고 간다.



## SKKU IMBA 입학은 예상하지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MBTI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정식 진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간이 검사를 통해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MBTI 유형은...”

초면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MBTI를 자기소개에 포함해서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간단한 특징을 전달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성격유형인지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로 우리는 MBTI 16가지 성격유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상에서 여러 주제들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런데 제가 2022년 전기에 IMBA 39기로 입학하고 난 후 MBTI 16가지의 성격유형으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IMBA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인생 내공이 몇 단계는 성장해질 수 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MBTI 성격유형의 16가지를 뛰어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SKKU IMBA !**

졸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IMBA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바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 사진 설명 : 39대 총학생회에서 준비했던 41기 OT 단체사진입니다. 41기는 여러분들 입학식날 졸업식을 했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갑자기 제목이 <MBTI보다 IMBA?>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텐데,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에듀파이교육 센터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MBTI 뿐만 아니라 DISC, 에니어그램, 버크만진단, 심오피스, Big-Five, TA교류분석 등 자기이해와 행동유형, 여러 업무스타일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급별 역량강화교육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칼럼을 작성하면서 간단히 세어보니, 매 년 약 150개의 기업에서 몇 천명이 넘는 교육 생들을 만난다는사



\* 사진 설명 : IMBA 동문들을 만나다보면 본업이 IMBA 재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하~

그런데 IMBA 동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제가 몇 년 동안 만났던 몇 천명의 교육생들을 IMBA에서 한 번에 다 만나는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졸업하고 보니, IMBA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밖에 없는 동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바로 각자 인생에서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캐릭터도 명확하고 다양한 IMBA 동호회와 연구회에서 보여주는 에너지와 재능들을 보면 나와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만나 싶을 정도로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IMBA가 아니라면 나와 굉장히 멀다고 느껴졌던 직업군의 사람들도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소할 수 있는 직업군부터 알고는 있지만 나와는 멀다고 느껴졌던 직업군의 사람들도 만나면서 그들의 원동력과 인생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날들도 점점 더 많아졌죠.

보통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질과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와 환경,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받는 영향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혹은 인위적으로 익숙한 행동이나 만들어진 행동들로 점점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IMBA에서 다양한 성숙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번에 입학하신 45기 여러분들도 앞으로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인사이트를 넓혀주기도 하고 한 사람을 건너면 누구든 연결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업종에 대한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질 겁니다. (물론 길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경우도 예상 외로 많으니, 항상 조심해야합니다~~ 하하하)

제 경우만 하더라도 사무실이 위치한 삼성동에서 퇴근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동문을 우연히 마주치기도 하고, 지하철 환승하다가도 만나고, 기업 출장을 갔는데 고객사 팀장님이 동문이거나, 얼마 전에는 해외에서 귀국하는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동문을 만났습니다.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동네를 가도 IMBA 사람은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MBA에 입학하는 45기 신입생분들에게는 “동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놓치지 말고 다가가세요.”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신입생 OT를 시작으로 첫 학기는 다양한 모임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준비해서 진심으로 입학을 축하하고 45기 신입생들이 타기수들에게도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한 기수 선배인 44기도 6개월 전에는 어색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OT를 준비한 43기는 몇 년 학교 다닌 것 처럼 엄청난 에너지로 신입생들과 동문들에게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요?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청소년처럼 “입학했으니깐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해도 스스로가 납득하고 ‘열정적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IMBA에서 열심히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면서 활동하는 동문들은 스스로 IMBA의 매력을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 사진 설명 : 제가 2022년도 1학기 성학회 신입생 환영회 갔을 때 꽃도 받고 인사도 나눴던 추억의 사진입니다~

**IMBA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스스로가 성장하고 인생을 배울 수 있다**



\* 사진 설명 : SKKU IMBA는 다양한 인생들을 만나고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자신있게 경험해보세요!

늘 동기들과 선배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IMBA는 네트워킹이 아니라 학위취득을 목표로 입학을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이 소리를 하면 모두가 늘 안 믿는 표정을 보이지만...) 그런데 졸업할 때쯤 되 돌아보니, 누구보다 열심히 동기들과 동문들을 만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입학하고 첫 학기만에 알았거든요. “여긴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판이다!”

IMBA 2년 교육과정은 정말 박학다식한 교수님들이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학업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2년 동안 공부만 하다 끝내기에는 IMBA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매력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IMBA에 입학하신 만큼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도전, 경험, 젊음, 에너지를 함께 나누고 성장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하는 즐거운 오프라인 자리에서 조만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아연팜의 새벽을 깨워드려요

writer. 김동환 (39기)





### "잠은 언제 자나요?"

여러 행사 때 마주치는 IMBA 원우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다. 매일 새벽 카톡 방에 개그, 감동, 명언 짤과 함께 원우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는 나에게 가장 먼저 던지는 호기심인 것이다.

굿모닝 짤을 올리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IMBA를 지원했던 시기로 돌아가야 한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2021년 늦가을, 중국법인에서 IT 주재원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복귀한 나는 IMBA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지방에 거주하며 아직 어린 두 자녀의 육아와 회사 신규 업무 적응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기에, 주말에 오프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마침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한 IMBA를 선택했다.

대학원 생활은 예상보다 쉽지 않았다. 첫 학기에 조 과제 발표를 위해 학교에 한 번만 등교했던 터라 동기들과 마주칠 기회도, 친해질 기회도 전혀 없었다. 회사와 육아만으로도 벅찬 일상이라 대학원 진학은 그저 사치스러운 선택으로 느껴졌다. 그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포기한 채 아웃사이더로 지내던 나날, 1학기 계절학기 때 우리 기수는 나라는 존재를 잇은 채 동기들과 조를 편성하여 과제를 진행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타 기수와 조를 구성했다. 조원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회의 도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각자 맡은 과제마저 제 때 정리되지 않아 발표도, 최종 레포트도 홀로 많이 부담하게 됐다. 잔여 학기도 이런 조과제를 진행하기엔 내 열정과 노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대학원 생활은 예상보다 쉽지 않았다. 첫 학기에 조 과제 발표를 위해 학교에 한 번만 등교했던 터라 동기들과 마주칠 기회도, 친해질 기회도 전혀 없었다. 회사와 육아만으로도 벅찬 일상이라 대학원 진학은 그저 사치스러운 선택으로 느껴졌다. 그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포기한 채 아웃사이더로 지내던 나날, 1학기 계절학기 때 우리 기수는 나라는 존재를 잇은 채 동기들과 조를 편성하여 과제를 진행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타 기수와 조를 구성했다. 조원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회의 도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각자 맡은 과제마저 제 때 정리되지 않아 발표도, 최종 레포트도 홀로 많이 부담하게 됐다. 잔여 학기도 이런 조과제를 진행하기엔 내 열정과 노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먼저 나서서 동기들과 친해지고 싶었다. 2학기부터 학교에 나섰지만 이미 친해진 동기들은 무리를 지어 다녔고, 그 사이에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 보였다. 점심을 같이 먹을 사람도 없어서 이럴 거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이 속 편하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먼저 용기 내기가 어려웠던 때 따뜻하게 다가와 준 사람은 장종식 형과 구경모였다. 낯설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한 명씩 친해지던 시점에 내가 동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고, 강의 자료나 인터넷 상의 흥미롭고 유용한 자료를 동기방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미한 반응이었지만 남성적 누나와 함성화 누나가 응원해주며, 불규칙적인 자료 공유보다 규칙적인 시간에 공유해주면 더 보기 편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렇게 새벽마다 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 계기로 IMBA 내 좋은 형님, 누나, 친구, 동생들과 더 친해지게 되었다.

그렇게 한 학기가 마무리될쯤 2022년 가을에 성아연이 창립되었다. 39기가 주축이 되고 타 기수들의 고마운 도움과 지지를 받으며 구경모가 초대회장을 역임하여 첫 걸음을 내딛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나에게 선의를 베풀어준 그를 생각하면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다. 성아연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동기 방에 올리던 모닝 짤과 자료를 성아연에도 공유하기 시작했다. 타 동연회에서도 자료 요청이 있었지만 수많은 색 중에 성아연 만의 색을 찾고 싶다는 생각에 초기엔 성아연에만 집중했다. 2024년이 되어서 힐링 자료는 성록회를 비롯한 타 동연회의 원우님들도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개그 자료와 힐링 자료를 선별하여 힐링 자료는 지금처럼 다수 동연회에 공유 중이다.

3학기가 되어, 기대표로 선발됐다. 한 학기를 다니지 않고 아직 인사도 못한 동기들도 많아 서먹하기만 한데 기대표가 되었다는 사실이 다소 이상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동기들이 총학생회, 연구회와 동연회의 집행부를 역임 중이라 동기들을 섬길 일꾼이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동기들만 바라보면 한 학기를 보냈더니 4학기까지 기대표를 역임하게 됐다. 이 때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었다. 1년이나 기대표를 역임하다니 아웃사이더로 주변만 맴돌던 나에겐 전혀 예상치 못한 학창 시절이었다.

다시 개그 짤을 제작하는 이야기로 돌아가, "잠은 언제 자냐?"는 서두의 질문에 답을 하자면 기상 시간은 새벽 4시 50분이다. 매일 루틴은 기상 후 러닝이나 산책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출근 준비를 한다. 출근은 6시 버스로, 근무는 6: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한다. 12시간의 업무를 마치면 퇴근하여 간단하게 골프 연습을 하고 자녀들을 돌본다. 마지막으로 밤 11시 취침 전에 업로드할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고 다음 날 새벽에 전송한다. 건강을 생각해서 6시간은 숙면을 취하려고 루틴을 관리 중이다.

자료는 주로 인스타, 페이스북, 다수 사이트에서 보이는 짤들을 선별하여 캡처해서 저장한다. 원우님들께 의도치 않은 불편함을 드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이 되지 않도록 정치, 종교, 지역, 세대, 젠더 갈등 이슈가 있는지 점검하고 불쾌한 비속어가 존재하는 지 검수하고 있다. 나 역시 사람인지라 가끔은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타인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것 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보상 심리나 관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루틴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원우님들과 남은 여정도 동행하고, 그 원우님들이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기여, 이 선의가 조금이라도 전해지길 바란다."



배우 유해진이 남긴 말이다. "내가 굿모닝의 기분이 아니었는데 상대가 굿모닝을 하길래 나도 굿모닝을 하다 보니까 굿모닝이 되는 거야."

공감한다. 매일 좋은 기분일 순 없지만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좋은 아침으로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인사드리고 싶다.

"좋은 아침입니다. ^^"

김정환/74

아이고.. 아침마다 감사~  
아침마다 글보면서 명상이 루틴이  
되버려서.  
너무 좋은 글들이 많으넹. ^^  
다시 한번 감사~

박소연/79

어제 회금연 집부 식사했는데 니글 너무  
좋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하더라 ㅎㅎ 딱건  
안봐도 네건 꼭 본다는 말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 ㅎㅎ 내가 기부니가 너무 좋았다 ㅋㅋ  
너한테 너무 고맙드라~~^^  
오늘도 어김없는 너의 꾸준함에 또 감동  
그리고 박수를 보내주고 싶넹~ ㅎㅎㅎ  
고맙다.. 내 삶에도 좋은 에너지를 줘서~~

김기문/69

내년에도 성인연에서 봐~~  
유쾌하면서도 깊이 있는 동환이란 동생을  
알게 되어서 뜻깊었던 24년이었음 ㅎㅎㅎ

최근호/77

아침 출근길, 주말 새벽 운동가기전  
동환이가 올려준 글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받아^^ 매일 꾸준히 비슷한 시간에 글을  
올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고마워~♡

이재준/68

새벽에 좋은 글을 한 두번은 올리지만  
꾸준히 하는 것은 이타심과 루틴이  
필요한데.. 실천하는 동환이로부터 나도  
많이 배운다 ^^

최근호/77

동환아~~~ 안녕 ^^  
항상 좋은글, 좋은 그림 올려줘서  
너무 고마워~  
나에게 많은 배움과 도움을 주고있어...





# 해외 동문 지식 나눔 세미나 in 후이저우

---

writer. 차선희 (3871)



24년 1월 해외 동문 발대식 및 신년회를 하면서 2대 해외 동문 회장이 되신 하정수(32기)동문이 2년간 회장으로 봉사 활동을 하면서 1년에 1회는 성대 IMBA 동문들을 모시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최초 계획은 아시아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중국 하이난 미션힐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으니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편 및 비자 문제로 인해서 행사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하시면서 1년전 재학생 해지나를 심천/동관 /홍콩으로 했으니 후이저우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추진을 했습니다.

이번 24년 해동지나in후이저우편은 졸업생들이 주도하여 진행하는 세미나로 11월 21일 - 11월 24일(3박 4일)까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 에서 1기 - 44기까지 나이도 20대 - 60대까지 총60명이라는 분인 참석 을 해 주셨습니다. 정년 퇴임 을 하신 김종욱교수님이 모든 일정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일원으로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말을 안 듣고 개인 일탈 행동을 가끔 하신 최동윤동문님 말고도 몇 분 있었지만 정말 별탈 없이 잘 마무리해서 감사드립니다.

#### 24년 11월 21일 (행사 1일차)

심천 공항에 1진 2진으로 나눠서 1일차에 약 30명의 동문들이 도착하여 후이저우에서 가장 좋은 호텔중 하나인 르네상스호텔(5성급)에 짐을 풀고 1일차 환영 만찬을 준비한 몽골 식당으로 이동을 하여 몽골식 환영을 받으며 저희가 준비한 양 2마리 통 BBQ 및 각종 음식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해외 원우들과 국내 원우들이 3박 4일 동안 잘 보낼 수 있도록 이승열(34기-북경)동문의 사회로 네트워크 교류를 시작했으며 환영 이벤트로 캠프파이어 & 불꽃 놀이를 준비하여 동문들이 잠시나마 어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24년 11월 22일 (행사 2일차)**

후이저우 시내에 한복판에 있는 골프장에서 다 같이 즐겁게 라운딩을 하였습니다.

맛난 한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낮 술을 한잔들 하시고 2일 차에 도착하는 동문님들을 호텔에서 기다리면서 휴식을 좀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후이저우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에 최규룡(34기)동문이 후이저우시 정부에 요청하여 VIP급 안내를 받으면서 중국 3대 서호(西湖)중 하나인 후이저우 서호 및 북송의 시인이며 동파육을 보급시킨 소동파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관광이 끝난 후에는 후이저우시 상무국에서 저희 IMBA동문 들을 위해서 만찬을 열어 주셔서 다시 한번 후이저우 관련 내용 및 선물을 주셔서 정말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24년 11월 23일 (행사 3일차)**

오전에는 최규룡(34기)동문이 주관하고 있는 중한(헤주) 산업단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산업단지 견학을 하면서 그 규모에 역시 중국은 대단한 나라라고 다시한번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한번 전날의 긴장을 해소하고 진검 승부로 미니 골프 대회 라운딩을 했습니다.

3박 4일 행사의 마지막 날은 해외 동문회에서 준비한 "24년 해외 동문 송년회" 진행했습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 IMBA 해외 동문회 행사에 참석을 해주시겠다고 하신 성균관대학교 유지범총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1부 순서는 이승열(34기)동문의 사회로 귀빈 소개, 인사말, 감사패 전달 등 항상 차분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항상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김종욱교수님 / 최종빈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 했습니다.

행사 중간에 민동호(40기)동문님께서 2000만원 장학금을 학교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2부 순서는 차선희(38기)동문의 사회로 "선희를 이겨라" 테마로 800만원 상당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를 오신 동문들에게 게임과 함께 해서 나눠 줬습니다. 마지막 최고 선물(다이슨 에어랩)은 30문제 퀴즈를 맞추기 였는데요. 총장님까지 참여 하셔서 최고의 열기를 보여 줬습니다. 최종 우승은 신은정(34기)동문이 받았습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이기고 2등은 최규룡(34기)동문이 하셨다는 사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좋은 추억을 간지하기 위해서 단체사진을 끝으로 모든 행사는 마무리 한줄 알았으나 총장님을 모시고 노래방까지 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3박 4일 동안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24년 해외 동문 지식 나눔세미나 in 후이저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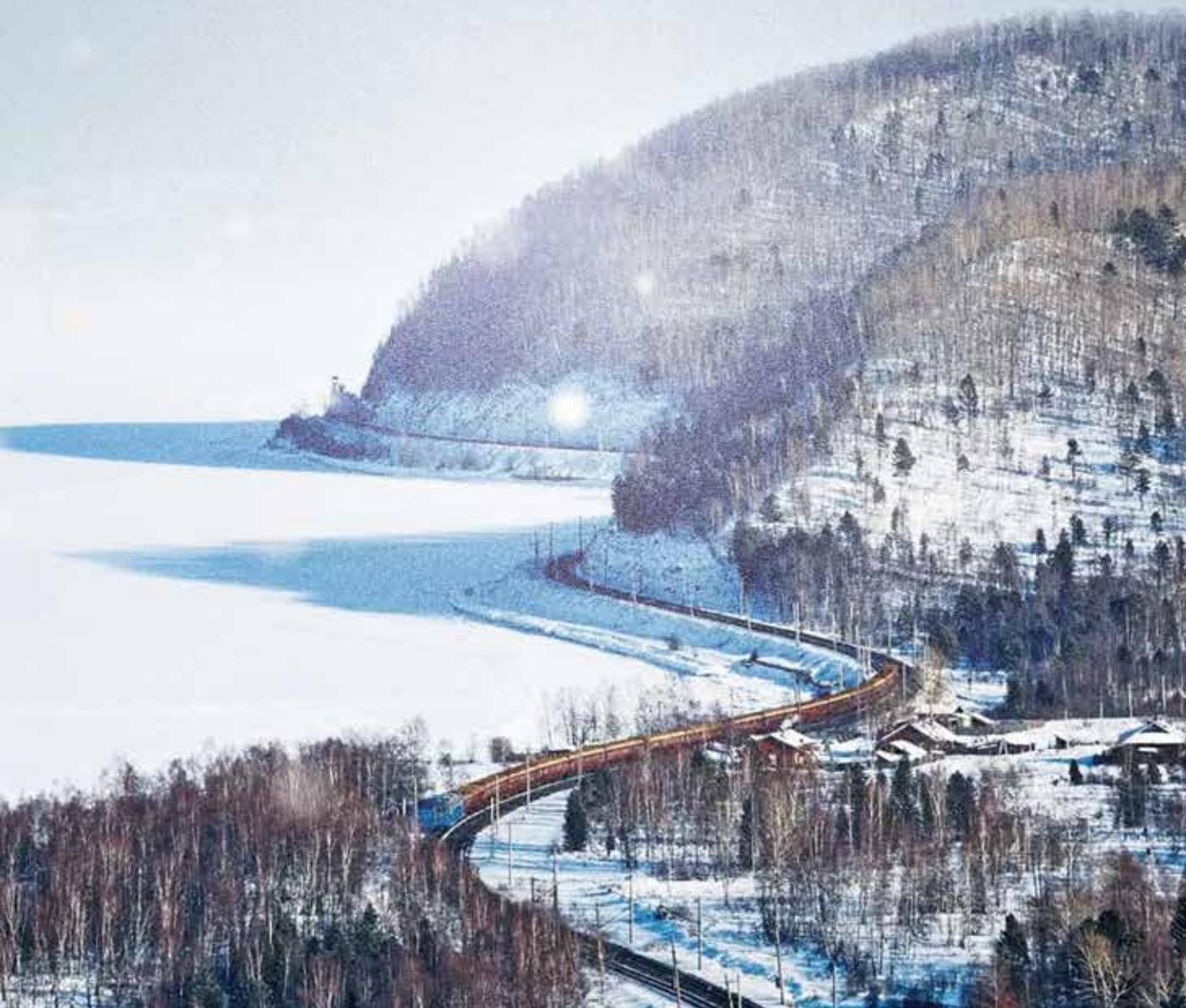


이 행사를 기획부터 진행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이름을 한분 한분 호명하고 싶지만 지면 관계로..그 중에서도 한감 넘으신 오일홍(33기), 최규룡(34기) 두 동문이 호텔/골프/식당/관광 까지 준비에 특히나 많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일원으로서 동문님들이 많은 추억을 간직하고 돌아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번 해외 동문 지식 나눔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외에 있는 동문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 바이칼 호수로 가요

writer. 박새미 (4371)



러시아... 가장 가까운 유럽.

비행기를 타고 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는 이국적인 문화와 풍경을 원하는 이들에게 인기있는 여행지 중 하나였다. 아쉽게도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행금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쉽게 갈 수 없는 여행지가 되었다. 하루 빨리 전쟁이 끝나고 정세가 안정되어 언젠가 무섭게 생겼지만 순박했던 러시아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바이칼 호수로 떠났던 추억을 꺼내보고자 한다.

세계 일주를 떠나면서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TOP3...나의 버킷리스트.

아이슬란드의 오로라 /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사막 / 얼어붙은 러시아 바이칼 호수  
그 중 여행 루트 상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것은 바로 바이칼 호수였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작점이자 선로 길이인 9,288km 를 상징하는 동상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여행을 시작해본다. 티켓도 기념품으로 챙겼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70시간을 타고 가면 이르쿠츠크란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가 바이칼 호수로 향하는 거점 도시이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인터넷도 없고 영어도 통하지 않는 낯 것 그대로의 새로운 곳이었다. 낮시간에는 접어서 의자로 사용하고 밤에는 펼쳐서 침대로 사용하는 6인실의 침대칸에서 러시아 현지인들과 손짓발짓으로 오예스를 나눠먹으며 먹고 자고 하다보니 어느새 3일이 훌쩍 지나있었다. 누워 있는 것을 워낙 좋아해 힘들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바이칼 호수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호수 중간에 있는 알혼섬으로 가야한다. 바이칼 호수 안의 섬들 중 유일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다. 알혼섬까지 가는 여정은 다시 이르쿠츠크에서 7시간 정도 봉고 버스를 타고 가면 알혼섬으로 가는 입구가 나온다. 호수가 완전히 얼어붙은 겨울에는 자동차로, 완전히 녹아있는 계절에는 페리로, 어중간하게 얼어있는 계절에는 호버크라프트로 얼음을 뚫으며 이동하게 된다. 나는 호버크라프트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다.



78시간 만에 드디어 바이칼 호수의 중심, 알혼섬에 도착했다. 여기서 다시 귀엽게 생긴 외모와 달리 극악의 승차감을 자랑하는 푸아공에서 어깨춤을 들썩이며 오프로드를 45분간 달려가면 진짜 진짜 최종 마을인 후지르 마을에 도착한다. 이미 저녁 때가 다 되어 숙소에서 주는 저녁을 먹고 마을을 한바퀴 돌며 손짓발짓으로 맥주와 과일을 구입해 조촐하게 저녁파티를 즐겼다.

바이칼 호수를 탐험하는 방법으로 북부투어와 남부투어가 있었는데 나는 광활한 호수를 보기 좋다는 북부투어로 정하고 출발해본다.



처음부터 호수를 달리는게 아니다.  
푸아공을 타고 꽤 긴시간 오프로드를 달리고 달린다. 너무 멀컹거려서 멀미도 나고 두통도 있었지만 드디어 바이칼 호수라니...설레였다.  
알혼섬에 같이 들어온 홍콩인 가족과 한 서양 커플, 뿔끼 총만했던 외국인 3명과 혼자 온 나..  
오늘 여행의 동반자들이다.

얼마나 달렸을까...  
눈앞에 광활한 바이칼이 펼쳐지고 얼어붙은 호수위로 차가 진입하는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와아~~ 탄성을 내지른다.  
어디부터가 호수이고 어디까지가 하늘인지 감탄만 나오는 황홀한 광경에 나도 모르게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드디어 차에서 내려 눈이 부시다못해 시린 바이칼 호수 위로 한 발 내딛는 순간, 온몸을 때리는 바람에 눈물이 찔끔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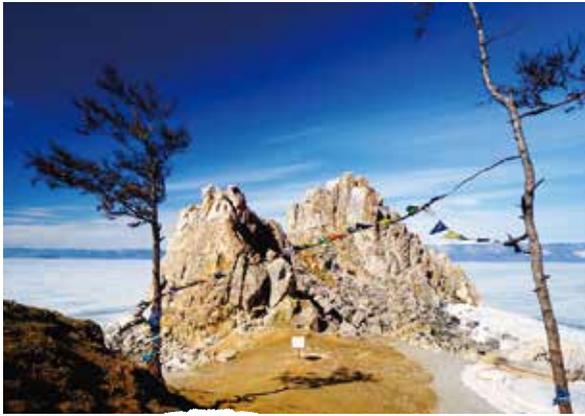
Lake Baikal



신나게 얼음 위를 뒹굴고 동굴 탐험도 하고  
같이 온 외국 친구들과 얼음으로 칼싸움도 하고 서로 사진도 찍어주며 즐기다보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추운 날씨에 카메라며 핸드폰은 이미 방전...  
화장실이 가고 싶어 물으니 "Everywhere!" 란 대답에 일단 참아보기로 한다.  
그리고보니 아까 얼음 속에서 갈색 무언가를 본 것 같기도 하다.  
그게 그거였구나...음.....



다시 긴 시간 바이칼 호수와 오프로드를 달리고 달려 후지르 마을로 돌아왔다.  
 신변을 해결한 후(?) 아쉬운 마음에 동네 뒷 쪽 탐방에 나서보았다.



바이칼의 중심인 알혼섬.  
 알혼섬에서의 중심에 있는 후지르 마을.  
 후지르 마을의 중심인 부르한 바위.....  
 샤머니즘을 믿는 후지르 마을 사람들에게 이 곳 부르한 바위는 매우 신성한 곳이다.  
 이르쿠츠크를 떠날 때 숙소 주인이 부르한의 정기를 많이 받고 오라며 응원을 해줬었는데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았다.  
 신성한 기운을 양껏 느끼며 바이칼의 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해본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13개의 세르게가 부르한 바위로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  
 세계 9대 샤머니즘의 성소라는 이 곳...  
 주변에 동전이 잔뜩 떨어져 있었지만 왠지 건드리면 안될 것 같은 식스센스가 발동하여 곱게 피해 소원을 빌고 나도 동전 하나 던져본다.  
 내가 한 이 선택에 후회 없도록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만끽하기를.....



Watch your thoughts -  
 They become words.  
 Watch your words -  
 They become actions.  
 Watch your actions -  
 They become habits.  
 Watch your habits -  
 They become character.  
 Follow your character,  
 It determines your destiny.



세계 일주 D+19 ~ D+141,  
 버킷리스트 TOP3 중 하나 달성 완료!

# 2025년 봄, 성균관대 맛집 Best5를 찾아서

writer. 송혜민 (40기)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맛집 네비게이터 40기 송혜민입니다.

아이스티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맛집 섹션을 또 다시 제가 맡아 작성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선, 2025년 봄학기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흠.. 앞페이지의 어려운 글들 보다가 제 맛집 소개 페이지를 보니 반갑지 않으신가요? :-)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가볍게 즐겨주시길 바라 며, 앞으로 더욱 즐거운 대학생활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신입 원우님들을 위해 제가 대표로 성균관대학교 근처 비밀 맛집을 선배들에게 어렵게 물어 물어 알아왔습니다.

선배들이 추천하는 성균관대 맛집 Best 5는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Best 1

## 수요미식회 출연, 대학로 본점 '정돈' 정돈 대학로본점



A 서울 종로구 대학로9길 12 지층

H 영업시간 매일 11:30~21:30

15:30~17:00 브레이크타임

14:30, 20:30 라스트 오더

- 등심돈카츠 16,000원
- 안심돈카츠 17,000원
- 등심&안심돈카츠 21,000원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다른 곳에서도 즐길수 있지만, 역시 맛집은 본점을 찾아야 한다. 바삭한 튀김옷에 육즙 가득한 고기의 조화는 단연 최고. 이 가게의 Kick은 레몬소금과 고시히카리 쌀밥이다. 돈카츠 뿐 아니라 함께 곁들이는 음식의 조화까지도 생각한 아주 바람직한 식당이다.



### Best 2

## 미식클럽 출연, 칼국수에 수육과 문어 곁들이는건 어때요? 명륜손칼국수



A 서울 종로구 혜화로 45-5  
H 영업시간 월~금 11:30~13:30  
(토, 일, 공휴일 휴업)

- 칼국수 10,000원
- 수육(소) 30,000원
- 문어(소) 30,000원
- 설령탕 12,000

점심시간이 조금 늦으면 식자재 매진으로 음식을 먹을수 없는 찐 맛집 중 하나. 아쉽게도 최근엔 주말과 공휴일은 휴업이라고 한다. 평일에 학교에 들릴 일이 있으면 꼭 가서 드셔보길 바란다. 노포의 감성과 분위기가 맛집 임을 인증. 점심에 방문하면 곳곳에 문어에 소주를 즐기는 낯술러들을 볼 수 있다.



### Best 3

## 주택가 속 보물같은 이탈리안 맛집 발견! 노말키친 혜화



A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6길 26 1층 노말키친  
H 영업시간 매일 11:30~21:00  
15:00~17:00 브레이크타임  
20:00 라스트오더

- 살치살 수비드 스테이크 42,000원
- 삼겹살 로제파스타 16,000원
- 우삼겹 바질 파스타 18,000

노말키친 혜화는 인기가 좋아 기본 대기는 평일 10~20분, 주말에는 30~40분 정도 대기를 감안해야한다. 가격이 조금은 부담되지만 살살 녹는 살치살 수비드 스테이크는 꼭 주문하여 먹어 보길 권한다. 파스타도 평타 이상하는 맛으로 점심식사 즐기기에선 제격. 아늑하며 따스한 가게 분위기가 좋았던 가게이다.



Best 4

구워나온 고기가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마로화적

★★★★★

A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16길 5  
H 영업시간 매일 11:30~22:00  
15:00~17:00 브레이크타임  
21:00 라스트오더

- 양념소갈비 19,500원
- 한돈 토마호크 스테이크 20,000원
- 새우부추전 23,000원
- 전통주 3종 샘플러 7,000

마로화적에서는 고기가 모두 직화그릴에 구워서 나온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 90년 세월의 멋진 한옥의 가게 인테리어도 굉장히 분위기 있다. 밥도 솔밥인지라 9분정도 걸리는데 함께 먹으면 꿀맛이다. 주인장이 직접 전국 양조장을 돌아다니며 선별한 6가지 전통주는 모두 문화재로 선정된 전통술이라고 하니, 방문한다면 꼭 전통주 샘플러도 맛봐보자.



Best 5

꿀조합 닭볶음탕 & 감자전  
동송골

★★★★☆

A 서울 종로구 동송2길 2  
H 영업시간 17:00~24:00  
월요일 정기휴무

- 땡초장육 26,000원
- 닭볶음탕 29,000원
- 감자전 16,000원
- 수육두부김치 26,000원

봄비가 내리는 날 하교후 동송골 방문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희극인들이 많이 찾기로 유명한 이 가게는 연예인을 만났다고 인증샷을 찍은 우리 원우들이 많다. 여러 메뉴가 있지만 특히 닭볶음탕과 감자전의 조화가 좋으니 꼭 이렇게 시켜 먹기 권장한다.

오랜 가게 안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에 막걸리를 한병 더 추가 주문하게 되는 마성의 가게이다.

# 2024 NEWS

## #01. 시작



5대 성아연의 슬로건은 '넷\*릭스 보다 재미있는 성아연'이었습니다. 1)정보/지식, 2)재미, 3)교류 /네트 워크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와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매월 개최하였으며, IT전문가와 비전문가에 상관 없이 모두가 즐겁게 어울리는 즐거운 성아연이 되었습니다.

## #02. 7월 15일 <복날 극복! 초복왕 이벤트> (Online)



초복을 맞이하여, 치킨 쿠폰을 걸고 가장 클릭이 빠른 5분께 선물을 드리는 소소하고 짜릿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뜨거운 여름을 우리의 열기로 이겨보았습니다.

## #03. 7월 24일 <장마 극복! 골든디스크왕 이벤트> (Online)



힘들기만 했던, 장마기간, '비'와 관련된 좋은 노래를 소개하는 이벤트로, 숨겨진 명곡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모두의 감성을 충족히 적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연팬의 가장 많은 공감을 바탕으로 LP플레이어 및 푸짐한 상품도 함께 나누는 이벤트였습니다.

## #04. 7월 28일 <올림픽기념! 골든애로우 이벤트> (Online)




24년의 여름, 지구촌의 축제 올림픽이 개최되었고, 우리 양궁전사들이 금빛 과녁을 쏘는 날! 우리 성아연에서도 <스쿨오브챔피언십>을 통해 양궁게임을 펼쳤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웃고 경쟁했던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우승자에게는 순금 메달을 증정하며 매일 쏟아지는 게임신기록을 보여, 역시 성아연 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왔던 즐거운 온라인 이벤트였습니다.

# 2024년 5대 성아연 활동 보고

#05. 8월 17일 <아이스티 매거진 3호 발행> (지식/교류)



성아연의 집단지성 산출물, IT트렌드 매거진 아이스티 3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많은 성아연 회원님들의 전문성 넘치고 유익한 기고문으로 이번에도 좋은 아이스티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아이스티는 신입생을 비롯한 원우님들께 나눠드리고, 아이스티 한잔해 프로그램을 통해 기고문을 원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퀴즈도 풀고 아이스티도 마시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순환 될 수 있었습니다.

#06. 8월 22일 <몇기순대?> (오프라인/네트워킹 이벤트)



졸업생, 재학생 누구든 찐득한 순대국밥과 네트워킹으로 하나되는 <몇기순대?>가 성료되었습니다. 많은 성아연 회원분들께서 따뜻한 순대국을 놓고 기수별로 어우러질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으며, 인증샷을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

#07. 9월 7일 동연데이, 9월 12일 신입생 환영회 <아마르파티>



9월 7일에는 모든 동아리, 연구회의 흥보가 있었던 동연 Day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에는 5대 성아연의 새로운 출발! 44기 분들을 모시고 모두가 어우러진 즐거운 신입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푸짐한 경품과 졸업생, 재학생의 어울림, 그리고 <성아연>과의 콜라보 환영회를 통해 보다 즐겁고 폭넓은 교류의 장을 열었습니다.

### #08. 9월 16일 <추석 이벤트> - 토끼&보름달 AI 그림 대회



추석 연휴에 모든 성아연 회원들이 부담없이 참여하고, AI 실력도 키워볼 수 있는 따뜻한 온라인 이벤트가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출품해주신 덕분에 유용한 AI 툴에 대한 팁을 서로 교류하고 좋은 작품과 따뜻한 그리고 재미있는 추석 이미지를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우승자분들께는 순금 메달을 지급드렸고, 참가자 전원에게 푸짐한 선물을 드려 이벤트와 넉넉한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 #09. 9월 28일 : Celebration 200

성아연의 기념적인 순간이 선물처럼 찾아왔습니다.  
성아연 가입회원수가 처음으로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5대 성아연에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더 좋은 연구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0. 10월 14일 : AI백일장, 음악만들기 대회



AI 툴을 활용해서, 백일장과 음악 컨테스트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숨겨진 동화의 뒷이야기를 창작하여 모든 성아연 회원들과 즐겁게 콘텐츠를 나누는 한편, AI 로 음악도 만들어보고, 공유하면서 실력과 재미도 키워보는 유익한 이벤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시원한 커피 쿠폰도 보내드렸습니다.



### #11. 10월 19일 : <AI 세미나> Claude 3.5 (런치크런치)



Chat GPT의 대항마, Claude AI의 특징과 다양한 활용법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런치크런치 세미나에 많은 성아연 회원들이 참여해주셨고, AI 활용 및 현장 실습을 통해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것도 실습 해볼 수 있었습니다.

#12. 10월 19일 : <성아연 두 돌 파티> - 힘지로 오프라인 네트워킹



성아연의 두 돌 을 맞이해서, 즐거운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을지로의 힙한 플레이스에서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성아연 회원간의 정을 돈독히 하였고, 생일 케이크와 축하노래를 통해서, 성아연의 뜻깊은 두 번째 생일을 모두가 함께 축하했던 즐거운 네트워킹이었습니다.

#13. 10월 30일 : <합동 세미나> 가상자산 시장전망과 투자전략



IMBA 동연회 합동 세미나를 통해 좋은 인사이트와 교류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4. 11월 9일 : <아면가왕> (코노, 유튐) 블라인드 노래경연 이벤트



11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블라인드 노래경연 이벤트, <아면가왕>이 뜨거운 참여,사랑속에서 성료되었습니다. 익명게시판에서 얼굴을 가린채 노래한 코노영상을 youtube에 게시하고 서로의 노래를 들으며, 노래실력에 감탄하고 정체가 누구일까 궁금해했던 즐거웠던 이벤트 시간이었습니다. 1등에게는 공기청정기를 비롯, 한우세트와 너무나 푸짐한 선물들이 함께 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5. 11월 20일 : <로봇코딩> 오프라인 지식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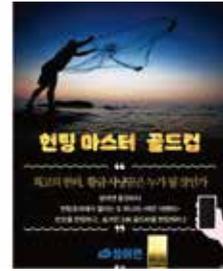
오직 성아연에서만 경험가능한, 로봇코딩 클래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가신청 하루만에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로봇코딩 클래스에서는 처음 다뤄보는 로봇이지만 열정과 스마트함으로 교육생 전원이 로봇 티칭을 성공하고, 이후 즐거운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서 지식과 재미를 교류하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 #16. 11월 25일 : <빅데이터 세미나> 성아연 x 제바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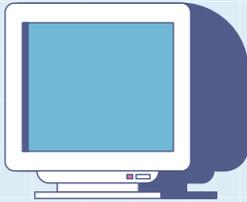
빅데이터, 건강 진단 기술과 설명가능 인공지능에 대해서 성아연/제바연이 함께 세미나를 열고 전문지식을 함께 얻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17. 12월 17일 : 성아연 종강파티



5대 성아연의 마지막, 종강파티와 마지막 순금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좋은 이야기과 맛있는 음식, 즐거움이 가득했던 종강파티를 통해, 함께 땀 흘렸던 서로를 격려 해주고 5대 성아연을 마무리하면서, 6대 성아연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였습니다.

Thanks



### #18. 12월 24일 : 크리스마스 영화추천 이벤트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성아연 회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 이벤트가 마지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영화대사를 함께 공유하고, 즐기면서 더욱 가슴 따뜻한 연말이 되었습니다.

### #19. IT전문자료 공유 (상시)



5대 성아연에서도 IT트렌트, 인사이트를 주는 좋은 자료가 상시 단독방을 통해서 공유되었습니다. 즐거운 이벤트, 세미나,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셨더라도 상시 쏟아지는 좋은 자료들을 통해서 성장에 한층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학기  
SKKU IMBA

# 6대 성아연 회원모집

25년 6대 성아연(성균관대학교 IT연구회)에서  
슬기로운 IMBA 생활을 함께하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AI/IT 최신 지식과, 즐거운 콘텐츠를 통해 집단지성을  
높일 성아연으로 초대합니다.

바로 지금, 성아연은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 6대 성아연 회장 : 43기 장관석

## 가입 신청 링크

<https://naver.me/5iTOakVI>



## 회비 및 후원

기존회원: 5만원

신규회원: 10만원

입금계좌: 3333 32 4755490 카카오뱅크 김태형  
소중한 회비의 가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AIT 성아연**

선배님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강성민 40기	김소희 41기
김기태 41기	방수진 41기
손성완 41기	변희용 41기
노근배 41기	정재교 41기
김동현 41기	정진경 41기
정은영 41기	강지봉 41기
홍문수 41기	윤성욱 41기
김선애 41기	현지수 41기
정민철 41기	변장원 41기
이상욱 41기	우지현 41기
김선혁 41기	송범진 41기
이정석 41기	김미경 41기
김종완 41기	

이상 25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졸업 후에도 건승하시옵고,  
또한 성아연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